# 경남간호

##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8호


권두시 | 튤립 | 김혜영 경남간호갤러리 | 서각 | 김재진 · 민화 | 최미자 특집 | 간호법 제정 |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일지 II | 박형숙 · 간호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로 | 남정자 · 간호법 촉구를 위한 엄동설한 삭발식을 지켜보며 | 권영채 · 상정과 통과 | 박형숙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 김선호 · 심연재 · 현주 회원작품 맛보기 | 거창군간호사회 · 남해군간호사회 · 함안군간호사회 · 이미희 · 장춘선 또 다른 나의 삶 | 김영숙 · 서희숙 · 송경희 · 이경옥 제31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돌아보며 | 김진화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경상남도간호사회
Gyeongsangnam-do Nurses Association

# 튤립

공원은 기하학이다

두 손은 다정하고
공사장 인부의 안전모가 빛나고

먼 네덜란드를 떠나온 튤립 구근은
부산 시민공원 입구에 피어나
나비 떼처럼 흔들린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노란 튤립 사이로
수녀의 검정 치마가 흔들린다

은은히 불어오는 예감에
입술은 공기처럼 부풀어 오르고
튤립 봉오리는 미풍에 고개를 흔든다

벤치에 앉은 노인은
아내의 손을 쓰다듬는다
감미로운 속삭임이 번지는 저녁

곁에 가만히 다가온 몸짓
누구일까,
계절을 기억하는 나선형 우주는 음악을 켜고

우리가 사랑한 붉은 튤립이
흔들린다, 기하학적으로

김혜영

1966년 경남 고성 출생 | 1997년 〈현대시〉 등단 | 시집 『거울은 천 개의 귀를 연다』(2004) 『프로이트를 읽는 오전』(2011) 『다정한 사물들』(2021) | 평론집 『메두사의 거울』(2005) 『분열된 주체와 무의식』(2013) | 산문집 『아나키스트의 애인』(2016,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천사를 만나는 비밀』(2020) | 문화비평서 『영미문화의 나침반』(2018, 공저) | 수상 2010년 제8회 애지문학상,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창작기금 수여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8호

■표지이야기
제1차 대표자회의 후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8호

발행처/경남간호사회
발행인/박형숙
발행일/2022년 12월 31일
편집장/신미란
편집위원/김영란, 심봉희, 이숙희, 조상희, 하재현, 황진희
주소/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題字) : 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튤립 | 김혜영

4 권두언 | 박형숙 |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6 격려사 | 이경옥 | 증경회장

경남간호 갤러리
8 서각 | 김재진
10 민화 | 최미자

특집 | 간호법 제정
12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일지 II | 박형숙
20 간호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로 | 남정자
23 간호법 촉구를 위한 엄동설한 삭발식을 지켜보며 | 권영채
26 상정과 통과 | 박형숙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30 간호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존재 | 김선호
34 나를 버티게 하는 것 | 심연재
36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는 길의 첫 마음 | 현주

회원작품 맛보기
39 도자기공예 | 거창군간호사회
40 가죽공예 | 남해군간호사회
41 목공예 | 함안군간호사회
42 수필 | 내가 사는 마을 | 이미희
45 수필 |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 장춘선

또 다른 나의 삶
48 퇴직 후 새로운 삶, 소소한 행복이 주는 즐거움 | 김영숙
50 퇴임을 맞아… | 서희숙
52 퇴직 후의 삶 | 송경희
54 5년간의 경남센터를 돌아보며 | 이경옥

56 제31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66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돌아보며 | 김진화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70 2022년 본회 주요소식
77 2022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창원시간호사회 · 진주시간호사회 · 거제시간호사회 · 통영시간호사회
창녕군간호사회 · 하동군간호사회 · 김해시간호사회 · 양산시간호사회
거창군간호사회 · 남해군간호사회 · 합천군간호사회 · 밀양시간호사회
함안군간호사회

86 2023년도 경상남도 간호대학 현황
87 경남간호사회 임원, 분회 회장, 상임위원
88 편집자 레터

| 권두언 |

# 밝게 빛나리! 경상남도간호사회

박 형 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2023년을 맞이하며 격동과 인고의 시간 속에서 보낸 지난해를『경남간호』제28호 속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호사를 향한 정부와 국민의 찬사에 전국의 간호사들은 기쁨과 보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묵묵히 버티어왔고, 한편으로는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환자와 지역민들에게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였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간호법안이 발의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악성 루머와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드디어 작년 5월 17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 상정과 통과를 기대하였습니다만, 법사위원들이 그 소임을 기피한 결과로 269일 만에 올해 2월 9일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부의(재회부) 되어 통과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시민단체들도 민생법인 간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큰 능선은 넘었으며, 마지막 고지를 향한 간절함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남간호』제27호에 게재한 2022년 3월까지의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 이어 같은해 5월 18일 감사 수요집회 이후 재개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Ⅱ'를 통하여 전국의 수많은 참여 회원과 간호대학생들의 수요일 행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거행한 삭발식과 경남의 16,000여 명의 회원들과 9,000여 명의 간호대학생들과 함께 한 결의대회뿐만 아니라 '간호법 팩트체크'를 들고 관련 국회의원실과 지역사무실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던 기억들… 이 모든 순간을 우리 간호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간호역사와 함께 큰 교훈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2018년『경남간호』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발간하면서 발행인으로서 회원들에게 경상남도간호사회가 전문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회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회원들과 지역민들을 이 공간으로 초대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16개 전국의 간호사회에 비해 우리 경남간호사회는 2020년도부터 2개 사업을 특별히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나는, 회원들의 간호학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3편의 과제를 선정하여 총연구기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ICN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해마다 1,000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여 21·22년도의 ICN 화상회의에 많은 병원과 대학의 연구자들이 본 회의 등록비 지원에 힘을 입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 국내적으로는 대한적십자와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에 기금을 후원한 사실 등으로 간호사회의 설립목적인 회원 자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와 지역사회의 봉사에도 충실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시절에는 창원역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마스크를 배포하던 일, 간호법 제정을 홍보하기 위해 또 다시 올해 2월에 창원역을 갔던 일, 수많은 경상남도 공적인 회의에 참석하여 간호사회 회장으로서 경남의 의료와 간호의 방향성을 개진하고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개설을 위한 창원과 진주에서 14주간의 회의에  참석한 일, 코로나 사태가 점차 진정되어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여한 선서생들에게 직접 축사를 할 때 마주하게 된 미래 간호사의 총총한 눈망울들, 15개 분회와 16개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역사, 간호정책 및 간호법 제정을 특강 하던 일- 퍼붓는 폭우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1년 4개월간 햇수로 3년 동안 수요집회 참여 후 양은주 처장과 함께 경남의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간호법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수없이 의원실을 방문하던 일, 그 가운데 강기윤 의원과 정점식 의원실은 지역구에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중소병원 규모의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요양병원 워크숍 개최, 질향상 세미나를 통해 MZ 세대의 신규간호사를 이해하고, 창원시간호사회 분회의 주최로 간호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난 뒤 창녕의 철새도래지인 우포늪을 시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산책하던 일 등등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 모든 행사와 활동들을 뒤돌아보건대 참으로 뜻깊은 날들과 시간이었으며, 많은 회원들과 소통하여 저의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어서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귀하고 좋은 작품으로 만난 작가님들과 소소한 일상부터 눈물겨운 체험담 등으로 참여해주신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신미란 홍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깊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면 소식지가 모바일이나 웹진으로 대체되고 있지만『경남간호』는 앞으로도 지면 소식지로서 당당하게 회원들과 도민들의 눈과 마음의 휴식공간이 되어 〈밝게 빛나는 경남간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격려사 |

# 길은 멀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경 옥
제27·28대 증경회장

> “‘간호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한 지도 7년이 흘렀건만 이익단체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앞길을 막고 선 듯한 너무나 많은 소모와 고난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간호사들에게 다음의 말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길은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2023년도 대한간호협회가 1923년 5월 12일 일제하에서도 우리의 대선배님들께서 「조선간호부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17개의 지부와 10개의 분야별 산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 전문직 단체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단한 전문직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를 마친 후 10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하면서 자료들을 정리하는 중에 우리의 선배들이 식민지, 그 암흑의 시대에도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는 고초를 당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의 삶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단재 신채호」라고 하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말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독립운동가이지만 박자혜 간호사가 신채호의 부인이며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간호사는 얼마나 될까요?

역사의 수난 시기인 1916년경부터 조선총독부의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 1919년 3·1운동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민족과 국가관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독립운동간호사조직인 「간우회」를 창설하고 만세운동을 고창, 동맹사업, 3·10만세운동 등을 계획했으며 그로 인해 체포, 수감생활에 이르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기록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박자혜는 ‘과격하고 언변이 능한 자, 조선총독부의원 간호사 모두를 대상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한 주동자’였습니다. 수감에서 풀려나 중국 북경 옌칭대학 의학과에서 수학 중 신채호를 만나 결혼한 후 옥바라지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신채호의 옥중 사망 후 힘든 삶을 살다가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10월 16일 단칸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박자혜의 독립운동을 기리며 1990년에야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하고 독립운동 근거지인 인사동 69번지에 「박자혜 산파터」 표지석을 세웠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간호역사 100년을 다시 정리하고 짚어야 함은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64년 만에 너무나 힘겹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앞마당에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한 지도 7년이 흘렀건만 상황도 더 어려워진 듯하고 이익단체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앞길을 막고 선 듯한 너무나 많은 소모와 고난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간호사들에게 다음의 말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길은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경상남도간호사회 선후배 회원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정해졌다면 모두가 개인적인 사심이나 욕심을 버리고 다 함께 손잡고 굳은 의지로 한 발짝씩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사랑합니다.

**우보천리**
대한민국서각대전 특선 2021

●작가노트

**우보천리(牛步千里), 오늘의 한 걸음**

소의 걸음, 우보를 청동기시대의 문자인 금문(金文)으로 새겨본다. 소의 느림은 길게 뻗은 가로획으로 굵게 표현하였고 걸음 보(步)는 투박하면서도 땅을 딛는 단단함과 우직함으로 나타내고자 신중함을 기하였다. 그리고 색의 농담(濃淡)과 사선(斜線)으로 나아감을 표현하였다.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가는 모습, 스마트함과 속도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와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해냄으로 완성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새김을 통해서 단순히 책상 앞이나 벽면에 걸어두고 감상하는 장식물이 아니라 그 새김질을 통해 삶의 힘을 얻고 마음에 평안(平安)을 얻기 위함이다. 오늘의 한걸음이 내일의 소중한 천 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마친다.

**낙낙(樂樂), 人生 즐거움을 새기다**

충만(充滿)한 삶, 즐거운 삶을 각(刻)으로 그려본다. 좌측 상단의 둥근 모양은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명을 표현한 것이며, 낙이라는 같은 두 자를 나란히 배치(配置)함과 다르게 새긴 것은 인생의 '함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을 알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히 알고, 인생의 즐거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음을 알고, 다 같이 함께 살아간다면, 충만하고 즐거운 삶일 것이다. 오늘도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음에도 함께 새긴다.

**樂樂**
대한민국서각대전 특선 2022

**목인 김재진** (사)한국서예협회 창원지부 회원 | 제31,32회 경상남도서예대전 입선 | 제4회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 입선 | 2019, 2020 문자예술대전 입선 | 제58회 경기공예디자인대전 입선 | 제17회 대한민국서각대전 입선 | 제18,19회 대한민국서각대전 특선

**연화도** /2019년 생활속의 민화 전시

**군학도** /2018년 제7회 한국전통민화협회 공모전 입선

●작가노트

민화는 뜻 그림입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삶, 신앙, 멋을 담고 있는 생활 그림입니다. 소박한 일상의 소망을 자연, 동물, 꽃, 새, 글자 등 다양한 소재에 뜻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의미를 상징하며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충효와 삼강오륜의 교훈적 의미는 문자도에, 불로장생하며 이 상세계에 살고자 했던 인간적인 희망을 장생도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민화를 그리면서 받은 조상들의 복된 기운을 골고루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붓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최미자** 2020년 수필등단(에세이스트) | 한국전통민화협회 입선, 특선 | 제43회 플로렌스나이팅게일기장 수상 | 전)마산대학교 외래교수 | 전)국립소록도, 마산병원 간호과장

특집/간호법 제정

#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일지 II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우리 50만 간호사들은 해를 넘겨 5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쳐 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이 무난히 법사위도 통과하여 간호역사 100년 만에 간호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햇수로 3년째 2023년 새해 첫 수요일부터 2월 8일 제34차까지 이어 온 대한간호협회의 끈질긴 수요집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원의 지역구 의원실을 항의방문까지 감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안이 회부된 지 269일이 지나도록 간호법안을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드디어 2023년 2월 9일 목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춘숙 위원장의 사회와 주재로 간호법안이 24명의 의원 중 16표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후 적는 기록이다.

2022년, 음력설 연휴로 낀 수요일과 20대 대통령선거일 3월 9일을 제외하고 수요일마다 집회는 계속되었다. 수요집회의 행사와 활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대신, 공통적인 부분과 특정 간호계와 보건, 의료계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거나 국회와 정부의 반응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집회 장소는 3개 구역으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금산빌딩 앞 및 현대캐피탈 빌딩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호 7가지를 10시 30분부터 30분간의 예행연습을 거친 후 11시부터 신경림 협회장이 성명서 발표를 하고 이어서 박형숙, 박인숙, 황지원, 이경리, 최석진, 신용분, 김숙정, 안옥희, 장희정, 송미경, 전화연, 송월숙, 임미림, 강점숙 등의 여러 지회장 및 유재선, 강윤희, 김일옥 이사, 박경숙과 탁영란 감사, 곽월희와 김영경 부회장 그리고 부산의 박준영 간호대학생 대표 등등 호소문 낭독이 힘차게 수요집회마다 이어졌다.

주요 7개 구호는 1. 여야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2.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통과시켜라! 3. 60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4.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5.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6. 제정하라 간호법! 7. 간호법 통과시켜라! 등 집회 시기와 국회의원들의 반응과 상황-의협과 조무단체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각색하여 손혜숙 이사의 선창을 따라서 구호를 1시간 동안 외치고 간호법 간호법 간호법!을 3번씩 연호하면서 보드를 높이 쳐들고 1시간 30분간 한다는 것은 격렬한 노동에 맞먹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오전 11시부터의 여의도 하늘 태양 빛은 우리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고 얼굴을 거을렸다.

그러고 나서 우리와 대치해 있는 경찰관을 뒤로하고 국회 정문까지 수요집회 시기마다 참여 회원수가 약 300명~1,0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시간대가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국회에서 나오는 보좌관, 직원, 의원, 인근 건물에서 쏟아져나오는 직장인들, 지나가는 행인들, 버스와 승용차, 택시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연두색 티를 입고 행진하는 우리들을 1년 3개월간 수요일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회현장에 걸린 대형보드, 현수막, 구호 제창, 1인 피켓시위 등을 눈 여겨본 분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싶다.

1년 3개월여에 걸친 손 이사의 목소리는 매번 우렁찼다. 여의도에서는 이분이 전문 집회 MC이거나 간호장교로 알고 있단다. 아니다. 보건교사 출신 강원도간호사회 회장직을 역임한 분이다. 급기야 손 이사는 여의도 영웅으로 떠올랐다.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만 들리면 또 수요일이구나 하였단다. 어떨 때는 목이 부어 쇠 소리를 내거나 아예 안 나올 때가 있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부산역에서 용각산 2통을 사서 슬쩍 건네주었다. 도움이 되었는지?

**▪ 제16차 수요집회 | 2022. 4. 6.**

전국 250여 명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은 ICN의 간호법 제정 지지에 힘입어 "세계 간호계도 나섰다.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미국간호사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6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ICN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으며, 간호법 제정 지지선언문을 통해 "간호사가 현장에서 전문지식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급선무"라며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17차 수요집회 | 4. 13.**

이날 집회에선 이상순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오 나의 간호사〉, 〈간호법이 필요해〉가 공연돼 참석자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 나의 간호사〉는 간호사를 연인으로 둔 남자친구의 기다림을 노래가사로 만들었다. 〈간호법이 필요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 제18차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 4. 20.**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에는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써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경림 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 연대사가 있었고, 세계 간호법 제정 현황과 한국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최고경영자는 축사를 통해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ICN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제22차 국회 앞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수요집회 | 5. 18.**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간호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이며,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적정배치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하여 제22차 5월 18일 수요집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감사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은 윤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연유로 오후 5시 넘어 의원실로 돌아온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실을 방문하였다. -협회장, 중앙 임원들, 전국 17개 지회장- 어제 5월 17일 김 위원장은 간호법안은 민생법이므로 국민을 위해 필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법안 자구 한 자 한 자 심의하는 축조심사를 하였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였음을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그 고마움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1인 피켓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측은 즉각 반대성명 발표와 삭발 등을 감행하고 본격적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대적으로 언론매체에 과도하게 보도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병원 환자를 버리고 지역사회로 뛰쳐나갈 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 수술, 처방 등을 간호사들이 하게 되어 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 된다는 허위사실과 주장들을 백방으로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나 다른 보건 단체들이 반대하도록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더욱이 자기들의 직장을 간호사가 다 뺏는다고도 하였다.

**▪ 간호법 제정 촉구 경남지역 결의대회 개최 | 5. 26. 목.**

예정대로라면 이날 오전 10시에 법사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다루기로 되어 있었다. 하루 전날 협회장으로부터 각자의 종교에 의거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오더가 있었는데, 아침 8시에 새소식이 전해졌다.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법안들은 법사위가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특히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인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원이 아닌가? 더욱이 5차 심사하던 5월 17일 당일 간호법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과 강기윤 간사의원 등 모두가 퇴장을 해버렸다. 무슨 까닭인지, 어떤 사연인지 훗날 반드시 밝혀지겠지만 마지막 5차 회의에서 보여준 강기윤 의원과 서정숙 의원의 태도는 너무도 괴상망측하였다.

간호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제정 저지 운동 확산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당사 앞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80여 명이 집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이에 본 경남간호사회는 두 반대 단체의 허위주장과 간호법 제정 저지 행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지역 15개 분회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무려 240명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옥행자 함안군간호사회 분회장의 진행으로 구호제창, 피켓시위에 이어 남정자 제1부회장이 호소문을 낭독하였고, 성명서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주영 간호사가 낭독하였다. 오전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강의를 마치고 급히 합류한 박형숙 회장은 경남도민들의 응원을 이끌어냈다.

**5월 18일 감사수요집회 이후 잠시 수요집회를 잠정 중단하였다. 이제 우리 경남회원의 눈길은 법사위원회 간사가 있는 정점식 의원에게로 집중되었다. 여의도 의원실과 통영지역구 사무실을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10차례 이상 양 처장, 통영·고성 회원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정성과 예를 다해 간호법을 설명하였다. 법을 전공하는 검사 출신 의원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 제24차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 재개 | 10. 5.**

10월 5일, 제24차 시위부터 2023년 2월 8일 34차 집회까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물론 가까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사에서도 5차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한차례 집회를 하였다.

**▪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 합동 분향소 참배 | 11. 2. 수.**

이날은 10월 29일(토)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수요집회를 대신하여 협회 임직원과 전국 시·도 간호사회와 경남회장 박형숙과 양은주 사무처장 등 산하단체 회장, 사무처장이 모여 협회에서 마련한 애도 리본을 패용하고 국회 앞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였다.

**▪ 제28차 수요집회 | 11. 23.**

같은 장소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1월 23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의 파업시위는 음악 소리도 빵빵하고, 굵고 힘찬 목소리, 붉은 띠를 머리에 동여 메고 주먹 쥐고 흔들어대는 시위모습을 보고 드는 생각이, 너무도 얌전하고 무기력하게 여겨질 정도로 구호 외치고 가두행진 등의 우리 간호협회 회원들의 집회가 도대체 소용 있나 싶었다.

화물연대의 조직적이고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 집회는, 회원들의 입을 통해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앞다투어 파업을 하자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점잖게 피켓만 들고 구호를 외치는 우리 간호협회의 요구는 그냥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허공에 메아리 칠뿐 저들 국회의원의 귀와 눈에는 전혀 닿지 않았나 보다. 그럴 때마다 신 협회장은 환자를 볼모로 삼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 제29차 수요집회 | 11. 30.**

간호법 제정 촉구 제29차 수요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여의도로 이동해 낮 12시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날 한파경보가 내려진 영하 17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천여 명이 집결해 "대통령과 여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경남에서 37명이 참여하였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함께 했다. "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5월 26일, 10월 26일, 11월 23일까지 벌써 세 번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상정을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당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담아 11월 21일 13명의 1차 삭발식에 이어 '2차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장 등 7명(박형숙 경남회장, 이경리 울산회장, 안옥희 전북회장, 황지원 부산회장, 신용분 경북회장, 황문숙 제주사무처장, 간호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뜨거운 울음을 삼키면서 '간호법 제정하라'를 외쳤으며, 한마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결의를 다졌다.

삭발식 이후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침묵 속에 민생법인 간호법 제정 요구를 198일째 외면하고 있다고 하며, 간호사에게 사명감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바꿔야 하고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것처럼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30일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장 등 7명이 2차 삭발식을 했다.

**매월 4회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월, 11월, 12월을 경남과 서울을 오가면서, 23년 새해에도 1월 4회, 2월 8일 34차 마지막 수요집회까지 참석하였다. 경남회원들을 독려하면서 부지런히 새벽 3시부터 잠을 설쳐가면서 팔다리가 으쓰러지고 뼈가 녹아내리고 마음이 쓰라려도 오직 간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간호사 사명감 고취와 후배 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수요집회에 참여하였다. 매 수요집회마다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주신 경남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남회원의 참여자 수는 502명, 강기윤 의원 지역구 1인 시위는 10개월간(2022. 5.~2023. 2.) 462명이 참여하였다.**

**▪ 제31차 수요집회 | 2023. 1. 18.**

제31차 수요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0여 명이 집결했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가 함께 했으며, 경남에서 16명이 참여하였다. 지난 1월 16일(월)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간호법안을 일방적으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를 선언한 것은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당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간호조무사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검토하지 않은 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며 "법사위 위원으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였다. 이어 호소문을 낭독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제2부회장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와 체계·자구 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로 국회법에 따라 오히려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주장하였으며,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은 "1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였다.

**▪ 제34차 수요집회 | 2. 8.**

제34차 수요집회가 개최되었다. 내일 예고된 임시대표자 회의 대신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서 패스트트랙으로 간호법안 통과를 위한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출장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못한채 서울에서 1박을 하게 되었다. 내일 소기의 성과가 없을 경우 협회장을 따라 한강물에 뛰어들기로 작심했다. 간협의 임원과 지회장들의 삭발을 20명이나 하여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국민의힘 강심장 의원들에게는 한강물에 투신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

**▪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 2. 9. 목.**

아침 7시 조금 지나 집회 판을 벌였다. 여의도 하늘을 쳐다보니 희미하게 아침 달이 떠 있었다. 여의도 하늘에 뜬 아침 달을 보며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를 소망하였다.

의협이 오전 9시부터 인터뷰 진행과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한 시간 먼저 기습작전을 한 것이다. 만 1년 3개월 만에 KBS방송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왔다. 그것도 의협이 시위를 하니까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조금 찍어댔다고 여겨졌다. 저녁 9시 뉴스에 방송이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1시부터 회의가 개최되어 오후 6시가 넘도록 몇 차례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면서 법사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7개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오후 3시 정도 되어서 드디어 7번째 법안인 간호법이 논의되자마자 강기윤 의원의 발언이 쏟아졌다. 평소 늘 주장하던 말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김민석 의원이 그대로 되짚어 반박하였다. 첫째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의결하지 않은 법안은 원래 통과시킨 상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심의하는 것은 **법대로**이며, 둘째 2월 22일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강 의원의 발언은 **잔꾀**에 불과하며, 셋째 동료의원인 최연숙 의원이 5월 17일 참석하여 찬성한 사실을 그 당시 여당의 단독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당의 동료의원을 **능멸**한 것이며, 넷째 269일이 지나도록 법사위 의원들이 한 행위는 못난 **작태**라고 강경하게 비판 발언을 하여 생중계를 지켜보던 간협 임원진과 지회장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게다가 정춘숙 위원장의 엄중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사과를 받아 낸 일 또한 쾌거였다. 박 차관이 발언에서 5월 17일 간호법안 통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찬성하여 날치기 법안이므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3번의 사과 권고를 받고 얼굴이 벌게져서 -카메라 앵글이 잡히면서 표시가 났음-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여 사과한다고 우물쭈물 마지못해 사과를 하였다.

4시 30분에 정회하고 35분에 속개하겠다고 하였으나 43분이 되도록 최연숙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박인숙 서울회장이 빠른 정무? 감각으로 혹시 최 의원이 납치당한 거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초조하게 44분이 되어서야 우르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화면을 보고서 안도하였고 곧 투표가 실시되었다. 간호법안은 7번째 개표되므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6개 법안이 모두 17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이 법안 가운데는 의사면허 취소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 간호법안은 뚜껑 열고 보니, 16명 찬성, 1명 무기표, 7표 반대로 통과되었다. 정의당 1표! 국민의힘 1표! 더불어민주당 14표!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준 결과이었다. 최소 15표만 확보하면 통과되는데, 혹시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의 이탈표가 생기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였던가? 신경림 협회장은 며칠 동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전혀 식사를 못 하였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을까!

정춘숙 위원장의 간호법 통과방망이 두드리는 장면에 필자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신경림! 신경림! 신경림! 연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에 협회장이 "형숙 회장! 왜 눈물을 보이시냐? 울지 마세요."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 국회 앞, 강기윤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의 1인 시위, 매주 3년째 이어오던 수요집회, 예고된 다음 주의 5만 명 보고대회도 잠정적으로 all stop 하였다.

서울로 가는길
머나먼 고행길
이제는
끝이라 끝이라
뉘라서
이심사 헤일가
아 ! 아 ! 아 !
청춘아 가누나

**뒤돌아보면 21년 11월 23일부터 23년 2월 8일까지 수요집회 34회, 결의대회 4회, 부산역의 영남권 궐기대회 1회, 경남도청 앞에서의 결의대회 1회 등 총 40회의 집회에 참여하고 경남회원들을 독려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참으로 장대한 발걸음을 함께하였던 신경림 협회장, 서울 임원, 17개 지회장과 사무처장, 간호대학생 그리고 간호계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

## 2022년 간호정책 선포식
# 간호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로

남정자 / 경남간호사회 제1부회장, 마산대학교 교수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담은 법안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이자 시대적 명령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은 명백한 사회적 공의이자 정의이다.

2022년 11월 21일!

마치 내일 새벽 수백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의 심정 마냥 비장한 의지와 각오로 장비를 챙기듯 이것저것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보니 이미 시계는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잠을 재촉해 보지만 머릿속은 얽혀있는 간호법 실타래의 시작과 끝을 찾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듯 이런저런 생각 속에 헤매다니다 어느새 새벽을 깨우는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이태원 사건이 있었던 터라 '오늘 이 행사가 한 명도 사고없이 안전함 속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학생들의 출발 집결지인 학교를 향해 고속도로 위를 질주했다.

한편, 우리 경남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많은 상황 속에서 단계 단계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박형숙 회장님과 양은주 처장님, 그리고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애써주신 권영채 교수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과 분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또한 빠듯한 학업과 실습 중에서도 역사적 행사에 한 힘을 보태겠노라고 당찬 걸음으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해 준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340여 명을 필두로 한 경남지역 13개 간호교육기관 소속 간호학생 1,470여 명과 15개 분회 간호사 회원 530여 명이 참석함에 따라 2,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마산대학은 2019년 4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이끌고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했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피켓 제작, 대중 행사 시 안전교육과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고 본무대 맨 앞쪽 자리를 확보하여 매 순간을 생생하게 공감하며 혼연 일체감으로 행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덕분으로 가슴 벅찬 경험도 하게 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신경림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민생개혁법안이자 국민에 대한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 없는 계류와 국회의 소모적 정쟁의 중단과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하라"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발의부터 현재 상황까지 많은 부분을 함께 협조해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등 24명의 의원들과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여야 30여 명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단체들도 응원하는 영상을 보내왔으며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참석 단체장들의 연대사가 이어지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열의가 달아오르고, 앞뒤 양옆으로 앉은 이름 모를 참여자들은 어느새 동지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행사가 진행되는 5시간 동안 차디찬 시멘트 바닥 위에 앉아 있었음에도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고, 혼자라 작다고만 느껴졌던 조각난 마음들이 5만의 뜨거운 결의로 뭉쳐서 60만 간호인의 열정으로 피어났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대한간호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한 총 13명의 임원들이 무대 위에 일렬로 정렬하였고 이어서 '삭발식'이 진행된다는 말에 행사장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순식간에 숙연함으로 정적만이 흘렀다.

삭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여성인 우리들에게 쉽지 않는 결정이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었다.

# 간호법 촉구를 위한 엄동설한 삭발식을 지켜보며

권영채 / 경상남도간호사회 이사, 가야대학교 교수

간호법 제정의 절박함을 국민의힘에 호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간호사회장들의 삭발식이 진행되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가슴 아픈 눈물인지, 추워서 콧물이 흘러 훌쩍거리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먹먹한 심정이 되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우리 앞에 놓여진 높은 벽들의 한계 앞에 삭발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기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삭발이 진행되면서 어느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만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담은 법안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이자 시대적 명령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은 명백한 사회적 공의이자 정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집단인 기득권자들의 권력 앞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짐은 당연한 감정이리라. 게다가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우리 앞에 놓여진 높은 벽들의 한계 앞에 삭발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기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삭발이 진행되면서 어느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만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간호계 수장들의 삭발에 결연한 의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후배 간호사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었다.

삭발의 전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며 우리 모두는 말을 잊었고 참여자들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할 것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할 것, 국민과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와 비장한 각오로 결의를 다지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간호법! 간호법! 간호법!

이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담아 국회를 향해 절규하는 60만 간호인들의 처절한 함성이다. 2013년 간호법 100만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그날부터 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도록 파이팅을 외쳐본다.

**전국 60만 간호인의 결심,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님의 삭발식과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 발표**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 간호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즉각 심사하라!”**

11월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첫 간호법을 제정촉구를 위한 시위가 있었다. 지금도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구호들이 귀에 쟁쟁하며 심장의 박동수가 마구 빨라지기 시작함을 느낀다.

매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던 저로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서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14명과 기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그날 어찌나 춥던지 영하 17도를 기록하는 날씨에 손마디 발가락 마디가 끊어질 듯한 추위로 출발하는 심정은 더욱더 비장하였다.

집회 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차 수요집회를 진행하였는데 국민의힘 당사 앞은 용산 집무실 앞보다 훨씬 더 강추위로 몸이 얼어붙는 듯하였다. 이날 간호법 제정의 절박함을 국민의힘에 호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간호사회장들의 삭발식이 진행되는 순간이었다. 여기저기에서  가슴 아픈 눈물인지, 추워서 콧물이 흘러 훌쩍거리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먹먹한 심정이 되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

2022년 11월 30일 수요집회. 전국 회장단 삭발로 간호법 제정을 강력 의지 표명. 전국 60만 간호인의 결심,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삭발식.

었다.

삭발식 후 우리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님은 호소문을 통해 "언제까지 땜질식 정책으로만 간호인력을 소모할 것이냐"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는 박형숙 회장님을 비롯한 김해시간호사회 14명, 진주시간호사회 7명, 합천군, 함안군 각각 2명과 창원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에서 각각 1명씩 총 37명이 참여하였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비상연락망에 의해 이틀 뒤 12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역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합동궐기대회'를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리 뻗을 사이도 없이 국가고시를 1달 보름여 일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2달 있으면 임상에 나가서 직면하게 될 사안으로 왜 간호법이 통과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체감하자며 카카오 단톡을 만들어 호소하였다.

너무나 고맙게도 4학년 학생들이 특별한 일정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겠다고 하였고 김해시간호사회 회원들도 여기저기에서 참여하겠다고 알려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는 김해시 320명, 창원시 243명, 양산시 44명, 거제시 18명, 통영시 16명, 밀양시 13명, 함안군 9명, 사천시 5명, 거창군 4명, 남해군 2명으로 총 719명이 참여하였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집결 부산역 광장에 1만여 명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간호대학생) 15만을 대표해 1만여 명이 집결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부산시간호사회, 대구시간호사회, 울산시간호사회, 경북간호사회, 경남간호사회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함께 했다.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간호법안을 즉각 상정해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가 경남이기 때문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200일이 지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세 차례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동궐기대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안을 즉각 심사할 것과 국민의힘에서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합동궐기대회에 앞서 박형숙 경남간호사회 회장은 신경림 협회장님과 함께 국민의힘·부산 북구 강서구을)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경남 통영시 고성군)의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간호법안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하라!' 구호제창과 함께 막이 올랐다.

부산역 광장을 입추의 여지 없이 채운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한마음 한뜻을 표명했다.

부산역 광장을 입추의 여지 없이 채운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한마음 한뜻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님께서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커다란 스크린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적인 보건의료단체의 영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연대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안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00일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간호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국민의힘에서 수차례 제정을 약속한 법"이라며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선 안 된다" "왜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정치를 합니까? 공당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참여자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권영채는 끝까지 투쟁하리라는 입술을 깨물어본다.

특집/간호법 제정

# 상정과 통과

## — 정점식 의원 지역사무실 항의방문기 —

박형숙/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의원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려오시게 연락해주세요. 간호법 제정은 대선공약이었고,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1월 11일 간협을 직접 방문하시어 간호법 제정 약속하셨고 원희룡 장관님도 정책협약식을 통해 약속한 사항인데 왜 이 시간까지 답변을 안 주십니까? 오늘은 확답받고자 저희가 이렇게 왔어요."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신 정점식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오후 5시에 항의 방문하였다. 김 사무국장이 놀라면서도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오전에 부회장으로부터 경남간호사회 회원이 방문할 것이라는 통지는 미리 받았지만 48명, 거의 50명에 가까운 많은 회원이 오리라고 예상 못 하였든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의원님께서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어떻게 의원님 오시라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어거지 그만 말씀들 하시고 이 사무실을 나가주세요! 우리 퇴근해야 됩니다."

젊은 어느 회원이 이렇게 당사 점거 농성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아무려면 우리 모두 이런 사태는 유신 시절부터 신문이나 TV 보도에서만 본 광경이고 일반인, 특히 봉사가 천직인 우리 간호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기실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간호법 제정의 길이 이다지도 험한가?

이날도 수요일이라 양 처장은 서울에서 수요집회 참석하고 창원에서 이 교수와 통영으로 늦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도착하였고, 나는 이 농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고성 통영 회원들과 함께 총괄 진행하느라 오후 3시경에 통영 정점식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설빙 커피숍에 도착하였다. 아침부터 부회장의 빠른 활약으로 많은 회원들이 오후 4시가량 되니 속속 도착하였고, 이들 회원들에게 오늘 우리가 취할 구호와 행동요령,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경남간호사회 사무국에서 간식, 다과, 간호법 제정 피켓, 설명 책자, 몇몇 리플렛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의원님 오실 때까지 저희는 이 사무실 안 나갑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의원님과 전화 통화하게 연결해주세요."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 마지못해 김 국장이 여의도 의원실의 최 보좌관과 통화를 연결시켜 주었다. 이날 나라에서는 외국 국빈, 아마 아라비아 사우디 왕자가 방한하여 국가산업에 도움이 되는 어마어마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외교사절단 접견행사에 의원님 참석하고 계셔서 통화가 어렵고 보좌관인 자신도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할 형편이 못 된다는 요지의 통화를 3번이나 하였다.

"보좌관님, 그래도 통화하시어 이곳 통영에 경남회원들이 48명이나 와서 의원님 직접 뵙고 말씀 듣고자 하니 꼭 전달해주세요. 물리적으로 시간과 거리상 오시기 어렵다면 법사위에서 3번씩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안을 다루자는 제안을 여당 간사이신 정점식 의원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니 그 이유를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그동안 의원님을 직접 8월, 9월, 10월에도 통영으로 와서 뵙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확답받으라는 회원들의 성화도 있었고, 확답을 팩스나 구두약속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통화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경남간호사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의원님께서 보살펴 시정을 펼쳐야 하는 경상남도 도민이기도 합니다. 부디 전화 연결시켜 주세요. 보좌관님!"

농성 중에 갓 결혼한 새댁 2명은 가정 지키느라 귀가하고, 밤번 근무하러 10시에 당사를 나간 회원 10명 빼고 남은 사람 36명이 충무김밥을 사 와서, 퇴근 못 하고 있는 여직원과 당황해하면서 우리더러 나가

라고 종용하던 국장과도 저녁 끼니를 나누어 먹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점점 흘러 밤이 깊어 갔다. 사들고 간 귤을 까먹고 생수도 마시고, 혹시나 밤새우기 위해 준비해간 담요를 만지작거리면서 국장이 앉아 있는 책상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농성 회원들은 점차 지쳐갔다. 난감하였다. 같은 시간대에 부산광역시 회원들은 강서구 김도읍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가 농성 중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다행히 내일 아침 8시에 김도읍 위원장과 황지원 회장이 통화하기로 약속하고 해산, 귀가하였다고 하였다. 도대체 5월 26일, 10월 26일, 11월 23일 3번이나 간호법안을 여당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나는 통영 당사에서의 최 보좌관과 김 국장과의 통화내용과 진행사항을 스피커폰으로 협회장에게 실시간 보고하였다.

자정 5분 전! 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어느 회원이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들! 모두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 사실을 다 올리세요. 통영 바닥 좁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관여하는 단체, 로타리○○, 우리 병원 등등해서 정점식 의원이 우리가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좀 만나달라는데, 보좌관이 전화 연결도 안 해주고 있어요, 무슨 국빈 대접 행사를 밤 12가 넘도록 한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행동거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국장이 인스타그램 운운하는 말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 차렸는지 급히 서울로 메일이던 톡으로던 우리 회원의 말을 타전한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정 의원님이 "박 회장님~ 이 시간까지 안 가시고 거기 계시면 어떻합니까? 오늘같이 바쁜 날 하필 오셔서. 하여간 당의 중진의원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화장실 가시거나 잠깐의 휴게 시간은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의원님! 논의 시점은 훨씬 지났습니다. 법사위에서 3번씩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의를 동의 안 하셨습니다. 신경림 협회장님이 대구 최석진 회장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만났을 때 강기윤 의원님 불러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음을 제가 확실하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상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와 약간 힐난 내지 귀찮다는 느낌의 어감이 흘러나왔다. 국장이 스피커폰 하지 말라는 제스쳐를 아주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한 손으로 폰 들고 통화하고 한 손으로는 통화 내용을 적어야 하는 상황이라 긴장이 너무나 되었다. 누가 의원님과 나의 통화내용을 메모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어 아무리 손짓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명색이 경남간호사회 회장인 나를 회원들이 믿고 뽑아줬는데 이 소임을 제대로 해야 하는 무게감이 늘 지배하기 때문이다.

"의원님! 상정과 통과를 동시다발로 해 주셔요. 상정과 통과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1시 반에 틈을 내서 신경림 회장과 통화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진의를 파악하여 진행하도록 할 테니 이제 모두 귀가하시지요."

신경림 협회장이 그 시간에 정점식 의원에게 전화할 것을 몇 번 확인하고, 7시간 만에 성사된 짧은 통화를 마쳤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은 충분히 피력하였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무실은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환경 정리와 클린은 우리 간호사들의 뛰어난 업무 솜씨 아닌가! 새벽 1시 반에 신경림 협회장에게 소상하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통영과 부산 일이 신경이 쓰였던지 곧바로 내 전화를 받았다. 집에 귀가하니 새벽 3시, 샤워하고 정신 줄 가다듬고 정리하다 보니 새벽을 지나 동이 트는 것 같은 길고 긴 하루가 지나갔다.

일이 틀어지려니, 명석하고 정확한 신경림 협회장은 그다음 날 1시 반부터 손안에 핸드폰을 꽉 잡고 있었더란다. 전화벨이 울리면 곧바로 받을 작정으로. 나는 어떻게 두 분의 통화가 잘 전개가 되었는지,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본 당사 점거 농성 건의 성과 말이다. 그 전말이 궁금하여 2시에 신회장에게 전화하니까 '전화 안왔어, 여직까지!'……

후일담으로 협회장으로부터 들은 바는 '밤을 거기서 새웠으면 100% 성공이었겠지만, 그래도 85%의 성과는 있었어!'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1

# 간호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존재

김선호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1병동 간호사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전담병원들이 하나둘 해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 누구보다 환자와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말과 행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간호사가 있었기에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존재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호사의 일을 하는 동료 간호사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힘들어도 서로를 보듬으며 위하는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의료원에서 근무하는 2년차 간호사입니다.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보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근무하신 모든 마산의료원 선배 간호사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와 싸우신 선배 간호사님들이 계시는데 갓 1년이 넘은 제가 이 수기를 쓰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지만 신규간호사로서 맞이하였던 코로나19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졸업예정자였던 시절 마산의료원 면접을 보았을 때 병원에서는 입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그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입사하는 인원들의 대부분을 코로나 병동에 투입해야 할 정도구나, 밖에서 보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다.

2021년 8월 3차 입사자로 병원에 입사하였다. 교육담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 1주일의 교육기간 동안 레벨D 보호복 착·탈의 및 감염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며 "아, 내가 드디어 코로나와 마주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9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냥 지금 교육받을 때 그만둔다고 말을 할까?" 등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교육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덕분에 처음보다는 더 좋은 마음으로 병동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코로나 병동에 처음 갔을 때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쉴 새 없이 울리는(환자, 보호자, 담당의, 다른 부서의) 전화, 병동에 투입되기 직전에 보호복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 혹여나 놓칠세라 CCTV를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비장하고 대단해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저를 압도하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상황에 임해야겠다는 각오가 섰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금방 제 삶 속에 들어왔다. 먼저, 정말 많은 전화를 받고 걸었다. 병실에서 간호사를 찾는 환자의 전화, 그런 환자의 상태를 궁금해하는 보호자의 전화, 환자의 상태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담당의에게 Notify 하는 전화,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신환(신규 입원환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원무과의 전화, 신규 입원환자가 오는 것이 확정되고 나면 해당 보건소와의 전화 등 코로나와의 시간에서 전화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보호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다. 들어가는 시간은 예상할 수 있지만 나오는 시간은 예상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았다. 어떤 날은 10시간 가까이 근무하면서 다섯 시간 이상 보호복을 입기도 하였다. 한번 격리병동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은 흥건하게 젖었고 손은 퉁퉁 불었다. 장갑을 3겹이나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백 번씩 손 소독하느라 선생님들의 손은 찢어지고 갈라지기도 하였다. 보호복도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았기에 어딘가에 걸리거나 환자의 손찌검, 발찌검에 쉽게 찢어졌다. 매 순간 땀으로 범벅되고 긴장된 상황의 연속이었기에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병동 내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더기로 쌓여있는 레벨D 보호복과 장갑, 마스크 그리고 같이 들어간 동료 간호사가 전부였다.

CCTV 역시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매 순간 모든 병실에 간호사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병실마다 설치된 CCTV로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 1명은 CCTV 앞에서 화면을 주시하며 환자들에게 특이 사항은 없는지 지켜봐야 했다. 그러다가 혹시나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가 내려오려고 하거나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방역 특이사항이 있으면 무전기와 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였고, 연락을 받은 간호사는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곳을 향해 뛰어갔다. 때로는 환자들의 폭력에 노출이 되었지만 추가 인력이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선생님을 보고 있을 때면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코로나 전담지정병원으로 지정된 후 코로나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대처하게 되었다. 실례로 2021년 10월 23일경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가 보여 병동을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2021년 10월 26일, 정신과 병동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여 3일만에 근무가 대폭 변경되어 쉬다가도 출근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환자들의 특성상 2명 이상의 인원이

환자 이동시에는 음압 텐트를 이용하여 감염을 차단

보호복을 입고 24시간 상주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 뒤에도 위와 같이 감소세가 보이다가도 요양병원, 소아과 또는 투석환자가 대거 발생할 때면 가장 먼저 병동의 구조를 변경하여 환자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처하였다.

특히 요양병원 환자들의 경우 워낙 고령자가 많으셔서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기도 하였고 기본간호, 위생간호 등을 위해 부족한 인원으로 모든 환자들의 대·소변과 기저귀, 식사보조 등을 수행해야만 하였기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상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간호업무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병동 수선생님과 선배 선생님들께서는 유연한 대처와 상황 대응 능력을 보여 주셨고,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되었던 저는 정말 선생님들이 대단해 보였다.

이후 올해 5월경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공공병원 신규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병원의 배려로 동기 한 명과 교육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즉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자원의 수직적·수평적 불균형이 나타나며 비효율적 의료공급 및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앞으로의 공공의료기관은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직적·기능적·수평적·지리적 분배,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강의에서는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CS(환자지향, 친절)를 넘어 PE(PX)(환자중심, 경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장점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선배님들과의 만남, 간호사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간호법과 구체적인 의료사고 사례와 업무진행 시 간호기록 및 정확한 업무처리의 중요성, 의료분쟁이 단순히 환자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님에게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은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낸 전국의 신규간호사들을 만나니 반갑기도 하였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전담병원에서는 마산의료원과 같이 상황이 급변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을 들으며 "우리가 진짜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힘든 시기에 마산의료원의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병원에서 허락된 기회를 통해 좋은 교육을 다녀왔고 단순히 '나는 마산의료원에서 일한다'라는 생각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추구하는 큰 방향에 대해 공유하게 되니 좀 더 큰 뜻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강의는 비단 간호사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고 병원 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즉, 동료, 타 부서 직원,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에 대한 것과 업무를 위한 소통·메모·지시에 관한 것도 있어 더욱 좋았다.

신규간호사로서 코로나 시기가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다. 만약 입사 후 특정 병동에 소속되었다면, 해당 병동이 전담으로 하는 과목만 간호할 수 있었을 테지만, 코로나 병동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 환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들을 통해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접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술기술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유익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병동에서 일반병동으로 배치되기 전 다시 한번 교육실에서 일반병동 적응을 도와주셨다. 코로나병동만 체험한 신규간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가장 좋았던 것은 먼저 일반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들과의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이를 통해 배치된 후에는 쉽게 물어보기 힘든 것들을 동기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전담병원들이 하나둘 해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 누구보다 환자와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말과 행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간호사가 있었기에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존재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호사의 일을 하는 동료 간호사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경상남도에 계신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특히 마산의료원에서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2

# 나를 버티게 하는 것

심연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기나긴 코로나의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다. 코로나 전담병상에 오셔서 살펴주시는 병원장님, 간호사들의 정신적 지주이신 간호부장님, 중환자실을 지켜보고 가르쳐주시는 팀장님, 엄마처럼 무엇이든 포용해 주시는 수선생님, 다양한 물건을 이송하고 도와주시는 조무사 선생님들, 여러 병원 직원 분들, 코로나 중환자실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 선후배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다.

이름도 이상해서 어색했던 SARS-CoV-2(COVID-19)가 이제는 입에 붙어 버렸다. 처음에는 코로나19도 SARS나 MERS처럼 금방 끝나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끼고 외출을 삼가고 손 위생을 하고 모임을 피하고 집에만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상태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며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중환자실 전체에 음압격리를 위한 거대한 시설 공사를 하면서 나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절망했다.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열리고 난 후 수선생님은 다른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염된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동선을 만들고 수술방으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만들고 소독하는 절차를 만들고 계속해서 새로운 절차들을 만들었다. 간호사들은 보호구를 입고 환자를 전원 받고 간호를 하고 투약을 하고 호전되면 병동으로 보내는 일을 반복했다. 말이 들리지 않는 커다랗고 두꺼운 유리벽 사이로 우리는 이제 무전기 없이 작은 손짓 하나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수가 증가되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환자의 중증도 또한 올라가고 있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호구를 입고 벗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 종일 격리병실 안에서 환자를 간호하느라 기껏 입은 얼음조끼가 다 녹아 따뜻해지고 땀범벅이 되어도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간호사, 응급상황에 보호구를 미처 다 착용하지 못하고 급하게 격리병실로 들어가는 의사,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급박한 순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환자가 나아지는 모습과 보호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었다.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 1개월 만인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기나긴 코로나의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다. 매주 코로나 전담병상에 오셔서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고 살펴주시는 병원장님, 언제나 간호사들의 정신적 지주이신 간호부장님, 꼼꼼하게 중환자실을 지켜보고 가르쳐주시는 팀장님, 바로 옆에서 엄마처럼 무엇이든 포용해 주시는 수선생님, 다양한 물건을 이송하고 도와주시는 조무사 선생님들,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미화 선생님, 여러 병원 직원 분들, 그리고 코로나 중환자실 안에서 항상 고생하고 있는 동료 선후배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다.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어 쉬는 날에는 평화롭게 휴가를 즐기고 싶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3

#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는 길의 첫 마음

현주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음압격리실 간호사

계속 퍼져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정부지침도 수시로 변화하기에 매일매일 새로운 지침 숙지하기에 바쁘기도 하였고, 헷갈려하는 우리들로 인해 새벽에도 잠 못 들고 언제든 연락받아주는 수선생님의 지지가 있었기에 힘들었던 부분도 많은 위안이 되었다.

오늘 출근길도 최고 기온 34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볍고 짧아져도 오로지 변하지 않는 건 어딜 가나 한 몸처럼 하고 있는 마스크!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너무나도 익숙해진 풍경이다. 마스크도 패션! 핑크, 그레이, 연보라, 베이지, 화이트, 블랙…. 오늘은 기분도 우울해지니 핑크를 써볼까?

출근길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생각이 든다. 코로나 시대라 일컬으며 여행은 포기해야 했던 시간들이 벌써 2년이 지나 3년째가 되어버렸다.

2020년 1월. COVID-19라는 생소하고도 전염력 강한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도 발생을 하게 되었다. 점점 확산되어 가는 확진자들로 인해 응급실 또한 격리실 운영을 하게 되었고 격리실 전담 간호사들이 꾸려졌다. 격리실 담당 책임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수선생님 말씀에 열심히 해보겠노라 다짐하며 한발 내딛은 날들. 흐르지 않을 것 같던 시간들이 지나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이 줄어들어 실외마스크 벗기 등 여유로움이 찾아들었다.

병원은 아직 조심스런 상황이라 보호자 1인 상주, 면회객 금지, 외부출입 자제 등 여러 기준이 남아있다. 지금은 환자, 보호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정해둔 규정을 이해하며 협조해 주시지만 처음에는 여러 잡음이 일기도 했다.

초기 증상에 복통, 설사, 열 등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환자군의 증상이다 보니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하는 의료진들과 "내가 왜 코로나 환자 취급받아야 하는데" 하며 환자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고 당장 부친의 임종이 임박해도 특정 지역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내 출입이 안 되어 응급실 밖에서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보호자 1인 상주, 면회객 제한이 지켜지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불친절하다. 너희 부모면 그렇게 하겠느냐?" 등 보호자들의 말에 상처받아 새내기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많이 힘들어했다. "내가 병균이냐, 왜 가둬 두냐, 정신병자 되겠다"며 격리실 내에서 소리 지르는 환자들도 많았다.

보호자 없이 심정지 환자가 내원하면 부랴부랴 레벨D 입고 격리실에서 CPCR을 한 시간씩 하기도 하는 날에는 레벨D 안에서 비 오듯이 흐르는 땀과 열기로 인해 뿌예진 쉴드. 급한 마음에 뛰다 보호구 신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여러 번. 의사, 간호사, 구조사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CPCR에 임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계속 퍼져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정부지침도 수시로 변화하기에 매일매일 새로운 지침 숙지하기에 바쁘기도 하였고, 헷갈려하는 우리들로 인해 새벽에도 잠 못들고 언제든 연락받아주는 수선생님의 지지가 있었기에 힘들었던 부분도 많은 위안이 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병상으로 급히 다른 환자들 입원 및 퇴원 가능한 환자들을 분류해야 하는 날이면 늦은 밤이라도 다시 나오시는 수선생님, 접촉자 조사하기 바쁜 근무 책임 간호사, 응급실 내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을 다독이는 간호사들, 빠른 입원을 도와주시는 이송 선생님들… 모든 환자를 처리하는 동안 퇴근도 미뤄야 하는 날도 있었다.

평소 건강하셨던 50대 남성분은 직장동료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전수 조사에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악화된 폐 건강에 일상생활조차 힘겨워 결국 직장마저 그만둬야 했다며 한탄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아픈 반 친구들이 많아 학교를 안 가서 심심하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기도 하였다. 2주도 안 된 갓난쟁이가 아파 같이 확진된 엄마는 펄펄 끓는 열에도 몸조리조차 못하고 아이 먼저 챙기는 모습에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 수많은 확진자들을 만나고 또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아쉬운 시간들도 있었다.

한창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그때 갑자기 쓰러지신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면회조차 안 되는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해야 하였고, 전화로 힘겹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만 들어야 했다. "우리 큰 손녀" 하시며 계속 날 찾으셨다는 할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불안정해 하시는 환자분에게 몇마디 얘기 들어드리는 것 외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음에도 입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고맙다며 손잡아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에 이런 게 보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웃음 지을 수 있었다.

머니. 모든 가족들의 걱정과 바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날,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감을 느꼈었다. 마지막 가시는 모습조차 볼 수 없는 현실에 그저 집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내 직업이 이럴 때는 걸림돌이 돼버린 것에 실망스러웠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던 어느 날, 여전히 대기 환자가 줄을 서 있는 응급실 밖 풍경, 서로 먼저 진료해달라는 환자들 사이 이리저리 치이는 선별 간호사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들이다. 인근 병원에서 호흡곤란, 열로 전원 온 80대 할머니는 폐렴 증상이 의심되어 격리실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불안정해하시는 환자분에게 몇 마디 얘기 들어드리는 것 외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음에도 입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고맙다며 손잡아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에 이런 게 보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웃음 지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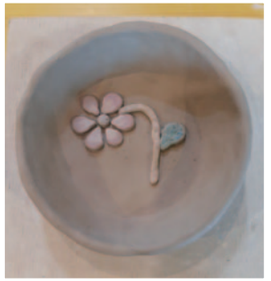
깊숙이 가라앉은 나의 신념에 작지만 큰 파문이 되어 되돌림을 받은 그날.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가는 길의 첫 마음이 이거였었지!' 종일 끼고 있는 장갑 속 퉁퉁 불은 손과 층층히 깨지는 손톱, 힘들고 싫은 소리 들어가며 가끔은 보호자들에게 욕설과 보호구마저 뜯기는 날들도 있지만 내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난 간호사가 된 걸 결코 후회 하지 않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

조금만 더 힘내어 지켜 나가보자. 우리 함께 마스크 벗고 웃어보자!

간호역량개발사업
거창군간호사회
〈도자기〉



간호역량개발사업
남해군간호사회

〈나만의 지갑 만들기〉

간호역량개발사업
함안군간호사회

〈나무쟁반과 나무의자〉

# 내가 사는 마을

이미희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며칠 전 작은 딸아이와 대화 도중에 있었던 일이다. “엄마, 내 친구가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에 ‘마을’이라는 말이 붙으면 시골이래” 그래서 내가 “아냐! 우리 집도 ‘마을’ 붙어있는데 도시야”라고 말했다고 했다. 나는 “맞아! 장유가 면에서 동으로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대도시에 비하면 시골이라 할 수 있지”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는 친구들이 자기가 자라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을 시골이라 표현하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다가 돌아서면서 나 혼자서 ‘마을’, ‘시골’이라는 단어를 되새겨 보았다. 누구나 어떤 상황을 기억할 때 장소, 이름, 일어난 일, 자신이 겪어보거나 알고 있는 것,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문득 ‘마을’, ‘시골’이라는 단어들이 정감 있게 느껴지면서 문득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시골 고향마을, 지나간 어린 시절, 이루고 싶었던 꿈, 나는 지금 어디에? 현재 내 모습은? 하는 생각이 이어지면서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경남 의령이다. 동네 앞으로는 냇물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는 배산임수의 작은 시골 마을이다. 마을에는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있다. 입구에는 약 600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북을 매달아 최초로 의병을 모으고 훈련한 곳이라 하여 ‘현고수’라 이름 지었다. 친정집 뒤쪽으로 가면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울 동네 어르신들, 이 씨 집성촌이라 모두가 나의 친척이지만, 이 나무들이 마을의 태평성대를 지켜준다고 하여 해마다 동신제를 지내고 새끼줄로 나무 둘레를 감싸며 신성시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나는 보았다.



>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아이들과 여행을 다닐 때면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큰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문화재 사랑’이라는 잡지를 지금까지 받아보고 있다.”

‘현고수’는 나에게는 집으로 오고 갈 때 보는 그냥 큰 나무였다. 나무의 그늘은 어린시절 나의 놀이터였고 일하러 가신 아버지와 엄마를 기다리다 만나는 기쁨의 장소, 친구와의 만남의 장소, 동네에서 큰일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크게 다투기도 하는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했다.

지금은 두 그루의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고 홍의장군의 생가는 유적지로 만들어져 말 타는 홍의장군의 모습을 크게 형상화하여 말을 탈 수도 있다. 생가의 멋진 정원과 기와집 몇 채가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가가 전해 내려오는 옛 모습과는 달리 너무 웅장하다. 원래의 모습을 벗어난 복원보다는, 오히려 시청각실을 두거나 인근지역 홍의장군 발자취와 연계한 설명을 자세히 하며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역사 해설과 관련해 일을 하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대학에서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 그 시대에 맞게 변해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보존되는지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막연하게 문화나 역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골 농부의 막내딸은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공부보다는 경제적 독립이 먼저였다. 주입식 교육의 최정점인 간호대학에 다니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방황할 때마다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나의 현실을 깨닫게 했다. 졸업 후 병원에 취업하고 결혼하여 살면서는 나 자신보다는 아이들과 남편을 우선시하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쁜 일상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꿈은 기억 너머로 저 멀리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아이들과 여행을 다닐 때면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큰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문화재 사랑'이라는 잡지를 지금까지 받아보고 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큰아이는 이과 성향이라 별 관심이 없었고 작은 아이도 책을 좋아하지만 문화, 역사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래서 매달 집으로 소식을 전해오는 '문화재 사랑'의 잡지는 나와 남편이 읽는다. 모든 문장을 꼼꼼히 다 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기사, 사진이 다양한 내용이 있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다. 무엇보다 무채색 배경이나 풍경, 유물, 옛것을 테마로 하는 표지가 예쁘고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 같아 항상 책장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넓은 방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역을 찾아보면서도 정작 내가 정착하여 20년째 살고 있는 김해 장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가야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까?'라며 내가 사는 집은 애착을 두고 그 집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마을이나 사람들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조차 두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장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장유에는 '마을'이 많다. 마을 이름도 모두 각자의 뜻과 유래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갑오마을'은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벼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들판인 문전옥답이었다고 한다. '계동마을' 앞뜰은 '갈뜰'이라 불렀고 '갈뜰'은 '가을들'의 준말이며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보', '가오뜰'은 '갑오'로 잘 못 알고 표기했다고 한다.

늘 한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만 같은 마을도 이렇게 자라고, 변하고 소통한다. 갑오마을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와 세월이 담겨있다. 우리 부부가 삶의 터전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해온 우리 마을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마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한 어릴 적 살았던 마을, 문화재가 있는 마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뿌리가 되는 마을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갑오마을'이 아닐까.





#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장춘선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이번에는 뭐 그려볼까요?"

10년 전부터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 토요일만은 온전한 나로 살고 싶었다. 주말에 남편과 아들을 집에 두고 나설 용기가 필요했다. 늦잠을 잘 수도 있는 토요일 아침 9시. 아침밥을 챙겨 먹이고 창동 예술촌으로 나선다. 차 안에서 듣는 Playlist는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알람 같았다. 창동은 직장과 가정에서 움츠렸든 마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는 '나의 케렌시아'였다.

파란 하늘과 구름, 지유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다녀왔다는 순천만 가을 하늘을 그리기로 했다. 세밀하게 밑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도 없었고 파란색과 흰색 물감만 있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파란색 계열의 두세 가지 물감을 섞어 순천만 가을 하늘색을 만들었다. 큰 붓으로 쓱쓱 캔버스에 칠하는 느낌이 좋다. 내가 좋아하는 맑은 가을 하늘이 되었다.

다음은 구름이다. 흰색 물감을 잔뜩 팔레트에 짜내고 구름을 관찰했다. 하늘 중앙에 회오리 모양의 구름이 겹겹이 있다. 흰색과 회색으로 조합하면 될 것도 같다. 산 가까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구름에는 잿빛과 하늘빛이 섞여 있다. 자세히 보려고 하면 할수록 구름의 형태도 색도 하나로 딱 떨어지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다. 막연히 생각한 구름은 흰색이었고 막상 그림 속에 넣으려니 흰색만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검은색, 파란색 물감을 추가로 팔레트에 짜냈다. 흰색에 검은색을 조금 섞은 옅은 회색, 검은색을 조금 더 섞은 짙은 회색, 흰색에 파란색을 섞은 옅은 하늘색… 여러 개의 붓을 사용해서 이쪽저쪽으로 구름 색을 따라가 본다.

사진 속 순천만 가을 하늘을 그려 볼 작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진 속 그림과 내 그림은 달랐다. 그림을 그렸든 세월만큼이나 마음 근육이 생겼다. 똑같이 그려야 할 이유, 잘 그려야 할 이유는 없었다. 내 그림에는 일주일간의 생활이 오늘의 감정으로 섞여 있다.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이다. 힐링이라 말하는 것들….

바라보는 인생은 쉬워 보인다. 다른 사람의 삶이 멋져 보일 때도 있다. 그림을 볼 때와 그릴 때가 다르고 사진 속 그림과 내가 그린 그림이 다르듯이, 삶도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똑같이 그려야 할 이유도 잘 그려야 할 이유도 없듯이, 나다운 삶을 살고 싶었다. 토요일은 '그림 그리는 나'로 즐기기로 했다.

창동 생활을 즐겼다. 길거리 공연이 있는 날에는 구경꾼으로, 프리마켓이 열리는 날에는 쇼핑하면서, 때로는 사거리 커피숍에 앉아 사람들의 차림새만 봐도 좋았다. 그렇게 사는 동안 눈으로 들어오는 사물의 색깔이 다채로워졌다.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없었지만 찾아내는 수만큼 기쁨의 감정이 살아났다. 무채색이 유채색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알게 되었다.

"창동예술촌에 그림 그리러 갈래!"

내과 중환자실에서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정년퇴직을 앞둔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제안했다. 그림 그리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불규칙한 3교대 간호사로 정해진 시간에 배운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불규칙하다'라는 근무조건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 불규칙했기에 '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수업은 토요일 오전 시간이다. 낮 근무만 아니면 갈 수 있었다. '한두 번 빠지면 어때. 한 번 가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나니 용기가 생겼다. 왜 그때까지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한 걸까.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답답했던 3교대 간호사,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나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자유 시간을 갖고 싶었다.

수간호사가 되면서 토요일은 온전히 창동예술촌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주말이 주어졌고 더 즐길 준비가 되어있었다. 창동 골목길을 10년 동안 돌아다니며 아지트를 만들어 두었다. 맛집, 예쁜 카페, 소품 가게…. '나중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작하겠다고 미루었다면 어쩌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기 전 내 마음은 무채색이었다. 간호사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채우지 않고 사용했으니 고갈이 되었고 점점 무감동으로 변해갔다. 창동을 오갔던 처음 몇 년은 무감동을 깨우는 시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채색이 되어있는 나를 발견했다. 창동 공용주차장에서 공방으로 가는 길에 숱하게 지나쳤던 곳곳에 그려진 벽화, 전봇대에 그려진 그림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찾아지는 색깔이 많

"창동을 오갔던 처음 몇 년은 무감동을 깨우는 시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채색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 창동 공용주차장에서 공방으로 가는 길에 숱하게 지나쳤던 곳곳에 그려진 벽화, 전봇대에 그려진 그림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찾아지는 색깔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도 깊이도 생겨났다. 행복을 찾지 못했을 뿐 그 자리에 있었다."

아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도 깊이도 생겨났다. 행복을 찾지 못했을 뿐 그 자리에 있었다. 소소한 일상에서 감탄과 감사가 터져 나왔다.

"원래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 나도 그림 배우고 싶은데 될까?"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의 톡 사진을 보고 물어본다. 화가인 척 즐기고 있을 뿐. 친구와 다를 바 없다. 단지 시작할 용기와 부족한 줄 알면서는 지속하는 끈기가 있다. 대부분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성과물이 있어야 성공이라고 말한다. 아니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에 좋은 때는 없다. 일단 시작하고 과정을 즐기다 보면 행복한 감정이 생긴다. 좋은 기분이 좋은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과를 내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것이 그림이 아니어도 좋다. 배우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시작해보라.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롬 무어가 쓴《결단》에 나온 글귀다. 최근 이 책을 읽고 내가 경험한 10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찼다. 행복한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졌다. 1년 전부터 책 쓰기 공부를 시작했다. 곧 공저 책이 출간된다. 형편없는 글이지만 시작하고 쓰면서 배우기로 했다.

또 다른 나의 삶 ①

# 퇴직 후 새로운 삶, 소소한 행복이 주는 즐거움

김영숙 /(전)함안군 백산보건진료소장

퇴직 후의 나의 일상이 어떤지 묻는다면 '소확행에 입문했다'라고 말하고 싶다. 비워가면서 살아가니 마음이 가볍고 있는 그대로 욕심부리지 않으니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인연들로 말년에 고독하지 않게 내어주고 내려놓고 살아보고자 하니 소소한 행복이 주는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다.

함안 백산보건진료소

### 들어가며

나는 1985년부터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2020년 5월부터는 제주도에 입도해서 살고 있다.

퇴직을 하고도 3,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에 적당한 경제력과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이 고통이 될지도 모른다. 퇴직 후의 나의 일상이 어떤지 묻는다면 '소확행에 입문했다'라고 말하고 싶다. 비워가면서 살아가니 마음이 가볍고 있는 그대로 욕심부리지 않으니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반짝반짝 잘 씻어야 하고 깨끗하고 멋진 옷도 입어보고, 가끔은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꿀잠에다 멍때리기도,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싶었다.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조금씩 모두 해보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인연들로 말년에 고독하지 않게 내어주고 내려놓고 살아보고자 하니 소소한 행복이 주는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다.

### 천직의 시작과 끝

1980년 12월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으로 의료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어민을 돌보고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재 일차보건의료복지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 5월 보건진료소에 첫 발령 받고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갈등도 한 적이 있었지만, 천직으로 알고 임했으니 후회는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정년이 되어 30여 년을 근무했던 직장을 떠나게 되었고, 단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상실감과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불안감이 함께했지만 퇴직 후 취미생활을 하면서 얼굴 보며 살자고 했던 말을 실행으로 옮기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틈틈이 취미로 배운 민요 판소리 풍물은 내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고 있다. 아마추어이지만 행사요청이 들어오면 겁도 없이 무대에 올라갔고 실력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도 함께여서 가능했다. 지역축제 찬조출연, 경로잔치, 경연참가 및 봉사를 거듭하면서 바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첫 퇴직 후 2년은 생각 없이 웃고 즐겁게 지냈다.

다시 찾아온 기간제 근무 중 열정을 다한 보건진료소 프로그램

### 다시 뛰는 가슴 - 기간제 근무

전 직장에서 2년 5개월 기간제로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는 공고가 올라왔다는 소식에 더없이 기뻤다. 주저하지 않고 응시해 면접을 보았고 진료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생각지 않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기에 2018년 1월부터 시작한 기간제 근무 기간에는 주민과 더욱 소통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세로 임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유수 같다고 했던가?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퇴직 후에 찾아온 2년 5개월 동안의 기간제 근무 기간은 익어가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 제주에 오길 참 잘했다

전문직으로 한 우물만 팠던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는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묶여 있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그러던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진짜 퇴사를 한 나는 제주도에 입도해서 바당길, 올레길, 오름을 다니면서 많은 걸 눈에 담고 또 담았다. 제주도에 입도해서 난생처음으로 느껴보는 색다른 지역문화와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육지에서 취미생활로 접한 풍물 모둠북 난타 민요동아리를 통해 습득한 기량을 제주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월하게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함께 축제에 참가하고 공연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차 지역주민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제주생활을 동경하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한달살이를 통해서라도 색다른 제주문화와 풍경을 경험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퇴직 후 새로운 삶, 소소한 행복이 주는 즐거움을 나와 같이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나의 삶 ②

# 퇴임을 맞아…

서희숙 /(전)마산의료원 간호과장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 곳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 개인 일신의 명예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 그 시절 시절마다 행하였던 선배의 발자취가 먼 훗날 후배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낙화_이형기〉

2022년 7월 1일은 공로 연수 시작하는 첫날 KBS 아침마당 프로의 시청자로 되었고, 평소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8월 중순경 간호대학교 후배 교수의 전화 속 강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병원 업무만 전념하였기에 몇 년 동안 쉬고 있었던 강의였지만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간호학과 가을학기 간호윤리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벌써 한 학기 종강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강의하던 날 학생들에게 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배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었다. 나의 38년 간호사 생활의 회고록처럼….

1984년 2월 이른 봄날 마산의료원 새내기 간호사로 입사 후 선배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도립의료원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서울의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많았으며, 환자가 없는 날 밤 근무하는 당직 의사에게 마산의료원 마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MMC(Masan Medical Center) 마산의료원 마크를 만들었고, 응급실 간호사실 데스크 만들기 등 간호사의 불편한 환경을 바꾸기도 하였고 1988년 8월 부산의대 출신 공보의들의 자문으로 병원노조도 설립하였다.

관료주의 병원장과 관리부장은 1995년 경영악화를 장기근속 직원들과 노조 책임으로 몰아 하루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신축병원 개원식 및 건물전경

침에 억울한 직원들은 휴업을 당했고, 분노한 직원들은 매일 출근 투쟁으로 휴업의 부당함을 도청과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기를 1년 1개월, 그 긴 시간과의 싸움에서 굳게 닫혔던 의료원 철문을 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로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경상대학병원과 위·수탁 체결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은 우수한 의료원으로 지역의 공공의료 선도를 책임지고 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의료원의 재도약을 위하여 새 원장님께 병원 증축을 제안하고 신축으로 이어져 대기업의 크리스탈 호텔을 기증받기까지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하였던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직업에 안주하지 않고 병원에서 언제나 주인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정의 마인드는 나를 언제나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퇴직을 몇 년 앞두고 마지막 내가 해야 할 과업은 신축병원에 맞는 간호부 직제를 만드는 것이란 걸 깨닫고 방해하는 환경·인물들을 바꾸고, 기다리고 병원장에게 또 요구하고 그런 인내와 노력 끝에 극적으로 간호부를 만들어 내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여러 곳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 개인 일신의 명예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 그 시절 시절마다 행하였던 선배의 발자취가 먼 훗날 후배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선배를 믿고 따라와 주고 사랑해 주었던 후배들의 덕분에 발전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에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또 다른 나의 삶 ③

# 퇴직 후의 삶

송경희 /창원시간호사회 회장

인생은 60부터라 하는데 퇴직은 했으나 은퇴는 아직 하지 않은 생산자로서 나의 일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학원과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자격증도 2개를 따고 좋은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협회를 조직하면서 온전히 나를 보듬고 어루만져,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모두 삶에서 죽음으로 가듯이, 퇴직을 향해 가고 있다. 영원히 살 수 없듯이 마냥 회사에 있을 수 없다. 선배들의 퇴직을 맞이할 때마다 느꼈고, 내 나이가 들면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장을 나오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얼른 퇴직하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1985년 진해시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을 시작하여 2022년 6월 말 마산보건소에서 명예퇴직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감하였다. 자긍심과 자부심, 뿌듯함이 넘쳐나야 할 퇴직이기에 1년간 공로 연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명예퇴직을 하여 당당히 박차고 떠나고 싶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대부분 그렇듯이 나에게 직장이란 나의 젊음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죽도록 성실하게 일한 기억밖에 없다.

2023년 1월 달력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퇴직한 지 7개월을 보낸 나의 하루하루는 역할과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편한 것이, 잠자리에 들면서 눈을 감을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마음이 편안하다 못해 날아갈 듯하다.

앞만 보며 달리던 질주를 퇴직하는 순간 멈추게 되어 직장 내 사회적 직함과 조직 속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저절로 정리되기에 너무 애쓰지 않을 것이며, 미련도 여한도 없기 때문인지 직장에 대하여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이상하리만큼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다.

월요병 없고, 복잡한 출근길 없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낙엽이 지든, 추운 날이 계속되든 간에 기상정보와 계절에 상관없이 감성을 돋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일상의 평온함과 행복감이 이전의 고단한 삶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것은 직장에 다녔더라면 주말에만 가능한 일들이 맘만 먹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평일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들과 맘 편히 여행을 다녀오고, 사우나를 가고, 조금 먼 곳이라도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부리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낮술까지 먹을 수 있는 호사를 누린다.

급한 일은 없다. 그러나 따분하지는 않게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 거닐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집 앞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피자가게에 들러 방문 포장을 하고, 나이 많아 보이는 원장이 있는 동네미용실에서 커트하고 눈썹 문신도 했다. 네일샵을 들러 화려한 보석으로 손톱을 가꾸고, 화장품가게, 작은 옷가게를 들러 구경하고, 과일가게, 떡볶이집, 치킨집 사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협, 수협, 우체국, 꽃가게, 학교 앞 분식집, 잔치 국숫집 등 조직에서 만나지 못했던 부류의 새롭고 따뜻한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사람 냄새 맡으며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나 직장과 굿바이 하는 것이지만 은퇴는 현직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생산자로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젊어서는 직장만 생각했지, 나이 들어 퇴직 후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60부터라 하는데 퇴직은 했으나 은퇴는 아직 하지 않은 생산자로서 나의 일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학원과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자격증도 2개를 따고 좋은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협회를 조직하면서 온전히 나를 보듬고 어루만져,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하루가 쉼표나 느낌표의 일상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니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고 한다.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건강 잘 챙겨 다른 사람 신세 안 지고, 앞만 보며 사는 삶 대신 옆도 살피고, 뒤도 돌아보는 인생 후반의 삶을 살 것이다. 이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며, 너무 열심히 힘들이며 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나의 삶 ④

# 5년간의 경남센터를 돌아보며

이경옥 /간호인력취업교육경남센터 팀장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저희 센터 교육에 감사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8년 5월 간호인력취업교육경남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에게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센터에 일을 시작할 때가 생각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막연한 마음에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 면접을 보며 호기롭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센터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센터 일은 저에게 새롭게 도전하는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도 임상에서 일을 하다 유휴기간을 가졌지만 교육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유휴간호사 교육뿐만 아니라 신규·경력 및 예비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유휴간호사 선생님을 발굴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센터 홍보를 위해 전화기를 부여잡고 저희 센터 직원들이 매일 같이 전화, 문자를 하며 센터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센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센터 교육에 스스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막연히 '나는 간호사였어'라고 생각만 하셨던 선생님을 상담하여 교육을 통해 간호사만이 가지는 DNA를 끄집어내어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기억에 남은 선생님 중 만 67세에 간호사 면허증만 소유하시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 선생님이 저희 센터에 문을 두드렸을 때 과연 선생님께서 교육을 완료하고 취업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선생님께서는 병원 경력을 67세부터 시작하시어 6년차 임상 베테랑이 되어 계십니다. 단절 기간이 길었음에도 임상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일하고 계시는 유휴간호사 선생님들을 볼 때면 이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덧 5년간 일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박형숙 회장님, 양은주 처장님의 지지와 도움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기관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간호인력 간 상호 이해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활성화, 병원조직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정서 강화를 통해 간호인력이 안정감 있는 병원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핵심기본술과 함께 CPCR이 포함된 상시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신규·재직·재취업 교육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켜 간호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저희 센터 교육에 감사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에도 저희 경상남도간호사회 소속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양질의 교육으로 간호직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센터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31회 학술발표회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1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을 2022년 6월 23일(목) 경상남도간호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주최로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 간호사의 이상섭식행위 예측모형 연구

주현정[1] 권영채[1] 진수진[2] 박미경[3]
[1]가야대학교, [2]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3]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이상섭식행위의 영향요인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내현적자기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직무 스트레스, 섭식 절제가 이상섭식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모형을 구축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고, 간호사의 근무유형에 따른 집단 간 조절효과를 통해 이상섭식행위 예측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이상섭식행위를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병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모집하였다. 간호사의 이상섭식행위를 예측하기 위해서 내현적 자기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직무스트레스, 섭식절제, 이상섭식행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 AMOS 18.0 프로그램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이상섭식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섭식절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이상섭식행위를 85.4% 설명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섭식절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직무스트레스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섭식절제를 통해 이상섭식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섭식절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직무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병원 간호사 집단과 보건소 간호사 집단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에서 직무스트레와 이상섭식행위와의 경로계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위와의 경로계수가 집단간 차이가 있어 부분조절효

과가 있었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에서도 병원 간호사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이상섭식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섭식절제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모색과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능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이상섭식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개인별 성격 성향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기준, 외모에 대한 신념, 직장과 업무 특성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통한 중재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이상섭식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과도한 섭식절제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2. 개인 성향을 파악하고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전략, 인지행동치료법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3. 직장과 업무 특성에 따른 다른 개념을 다양하게 도입해서 추후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키 워 드** 내현적자기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직무스트레스, 섭식절제, 이상섭식행위





#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예방을 위한 자기결정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재운[1] 김인숙[2] 김지원[3]
[1]국립부곡병원, [2]창신대학교, [3]봉명중학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SDT)의 하위이론인 기본심리욕구 이론을 근거로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자살적 자해 시도 청소년을 위한 자기결정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추후 지역사회 및 학교 기반 간호실무 영역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시도 청소년을 위한 자기결정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대상자의 기본심리욕구, 이원적 자아존중감 및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non 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정력(1-β)=.80, 유의수준(α)=.05, SDT 기반 중재에 관한 메타분석연구를 근거로 도출한 효과크기 .45로 계산한 결과 대상자 수는 32명으로 산출되어 탈락률 10%를 고려해 최종 대상자 수는 35명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연구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 거부로 인한 탈락자 2명을 제외한 33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2. 대상자의 기본심리욕구, 이원적자아존중감 및 비자살적 자해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자기결정성 증진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에 관한 가설검정은 paired t-test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예방을 위한 '자기결정성 증진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t=14.58, $p$<.001), 유능성(t=14.93, $p$<.001) 및 관계성(t=10.25, $p$<.001)의 향상과 자아존중감(t=20.47, $p$<.001)을 증진하고, 비자살적 자해 행동(t=-10.76, $p$<.001)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자아존중감 및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및 학교 기반 실무현장에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키 워 드**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해, 자아존중감





# 간호대학생을 위한 코로나-19환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강기노[1] 이옥종[2] 이재운[3]

[1]마산대학교, [2]창원시보건소, [3]국립부곡병원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COVID-19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학습하고자 하는 COVID-19 관련 간호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여 COVID-19 관련 간호 교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간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COVID-19 환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코로나19 지식, 간호의도, 학습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 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의 유사실험연구이며, 대상자는 경남 지역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 중에서 환경 및 교육 수준이 유사한 2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임의로 1개의 간호대학은 실험군, 다른 나머지 1개의 간호대학은 대조군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기반 간호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어 효과크기=.80, 유의수준=.05, 검정력=.80, 단측검정 시 independent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은 그룹 당 2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24명, 대조군 24명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정규분포의 경우 independent t-test로 정규분

포하지 않을 경우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 COVID-19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에 관한 가설검정은 indepen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여학생 74.3%였으며, 평균 연령은 실험군은 23.45세, 대조군은 22.13세 이었다.
1) 가설1 : '코로나-19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실험 처치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17.17±3.65 점에서 사후 24.50±0.82점으로 유의한 차이(t=9.87, $p$<.001)가 있어 가설1은 지지되었다.
2) 가설2 : '코로나-19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코로나-19 간호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실험군의 처치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전 17.03±3.57점에서 사후 19.10±2.73점으로 유의한 차이(t=4.45, $p$<.001)가 있어 가설2는 지지되었다.
3) 가설3 : '코로나-19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학습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실험군의 실험 처치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전 56.40±10.36점에서 사후 66.87±4.46점으로 유의한 차이(t=6.49, $p$<.001)가 있어 가설3은 지지되었다.
4) 가설4 : '코로나-19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실험군의 실험 처치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전 70.80±12.40점에서 사후 89.53±7.86점으로 유의한 차이(t=6.77, $p$<.001)가 있어 가설3은 지지되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환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지식, 코로나-19 간호의도, 학습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위한 COVID-19 환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학교 및 의료기관 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 워 드** 간호대학생, COVID-19지식, 간호의도, 학습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위한 그릿(Grit)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도영[1] 제남주[1] 김윤정[1] 장춘선[2] 김현주[3] 김현숙[4] 이선숙[5]
[1]창신대학교, [2]삼성창원병원, [3]창원파티마병원, [4]창원시보건소, [5]함안군보건소

**연구목적** 코로나-19 감염병을 잠식시키기 위한 열정가득한 간호사의 지원과 합류가 크게 돋보였으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의 전염병과 사투에서 점점 열정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동기의 지속성' (Cox, 1926)과 '열정과 열심히 일하는 능력이 결합된 능력'(Galton, 1892)이 필요하다. Duckworth(2016)는 이러한 성취를 위한 요소로 그릿(Grit)을 제안하였으며, 그릿은 성장(Growth), 회복탄력성(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줄임말로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정의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은 끈기가 강점으로 작용하여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국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 간호사의 경험 연구에 따르면(하재현, 김기련, 2021), 사회적으로 우울한 상황과 간호사에게 가중된 헌신 속에서 국민들의 많은 응원 메시지와 구호 물품을 통해 감동을 받아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을 위한 '열정 지속프로그램'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코로나-19상황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자 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그릿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제2가설 :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감정노동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3가설 :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잡크래프팅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릿, 감정노동 및 잡크래프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연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표적모집단이며 근접모집단은 G도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자료 수를 산정할 때 상관분석에서의 효과크기(r)는 small 0.1, medium 0.3, large 0.5으로 산출하였다.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의 표본 크기를 계산할 때 시점 간 상관은 상관분석에서의 효과 크기 중간 값인 0.3을 사용한다. 반복 측정 분산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f=0.2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은 0.8, 집단 수 2, 시점 수 3, 시점 간 상관 0.3을 했을 경우 그룹 당 19명으로 산출되어 탈락률 20%를 감안하여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그릿 14문항, 감정노동 16문항, 잡그래프팅 20문항으로 총 60문항의 구조화 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4)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ADDIE Model의 5단계에 따라 사전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순서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으로 초기(3회차), 중기(3회차), 마무리(2회차)로 4주 동안 주 2회이며, 회당 30분의 8회 차로 구성하였다.

○회차 당 준비 단계(2분), 도입 단계(3분), 본론 단계(15분), 정리 단계(5분)의 4단계로 구성하고자 하며 본 프로그램은 그릿 증진을 위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의 문헌 및 연구를 분석하여 구성할 것이다. '능력성장믿음(Growth Mindset)', '회복탄력성(Resilience)',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 의 상위 주제로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 '관심사를 분명히 하기',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기',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기',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타당도에 대한 평가

Lynn(1986)의 내용타당도의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의 판단과 정량화를 위해서는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CVI])를 적용하였다(Waltz & Bausell, 198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실행가능성과 연구도구의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검토 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으로 연구 설계를 재점검하였다.

**연구결과**

1) 제1가설 :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그릿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F=8.548, *p*=.006).

2) 제2가설 :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감정노동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프로그램 이후 실험군의 감정노동 점수가 유의하지 변화되지 않아 기각되었다(F=.644, *p*=.427).

3) 제3가설 : '그릿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잡크래프팅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는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F=8.548, *p*=.006).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줄이고 그릿 및 잡크래프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호사를 위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열정 지속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그릿 및 잡크래프팅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노동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키 워 드** 간호사, 그릿, 감정노동, 잡크래프팅

**경남간호 '핫 이슈'**

#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돌아보며

김진화 / 창원파티마병원 간호사

제1회부터 18회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를 돌아본다. 1회를 시작으로 마지막인 18회를 참석하면서 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1회는 엄마젖 먹이기 장려를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경상남도가 함께하였다.

2002년 경상남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기억되며 하루 전날 가서 대회의실을 발달단계를 위한 공간과 신체계측을 위해 검진대를 배치하고 대회에 오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포함한 보호자의 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포스트를 붙이며 대회를 기다리면서 당일에는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잠깐이나마 긴장의 끈을 잡고 애쓴 기억이 난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원 제한이 없고 보호자도 아기 1명에 기본 4~5명씩 오셔서 행사를 더욱 행사답게 만들어 주셨다.

회를 거듭하면서 경상남도 도청 공사로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창원 풀만호텔)로 자리를 옮기면서는 품격이 달라진다. 격에 맞게 오시는 부모님과 아이의 옷차림도 대회 내용도 더 풍요로워지고 준비하는 선물들도 더 고급화되고 대회가 점점 알차졌다. 각종 선물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와 참가증을 수령하고, 대회장에서는 참가 아기 사진과 프로필도 나오고, 4·5·6개월 각 30명의 아기들은 의사검진과 발달 검사에서 건포도도 집어보고, 블록도 옮겨보고 검사자와 눈도 맞추고 달랑이도 흔들어 보고, 모아애착은 간단한 모유수유 지식과 엄마와 노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한다. 대회장 외부 부스에서는 핸드페인팅도 하고 네일, 타투 등을 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신생아의 응급처치술을 위해 적십자에서 모형 인형을 빌려 직접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추첨, 모유수유 관련 퀴즈도 풀었다.

2018년 태풍으로 인해 대회를 어떻게 할지 고민 끝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거제에 계시는 참가자는 가족 여행 삼아 호텔에 투숙까지 하면서 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고 감기로 인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4개월 아기 30명, 5개월 아기 30명, 6개월 아기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대회발표를 하고 참가자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되어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대회 개최 시기에 맞춰 참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경우 등 경상남도간호사회가 개최하는 건강한 모유수유아 대회의 목적인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강조, 모유수유 실천사례에 의한 모유수유의 저변 확대와 선발대회를 통한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발굴하고 모유수유 실천가족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대회로 자리 잡았고, 마지막 대회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함께 참석하여 건강상담에 도움을 주신 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님과 그 외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 그리고 발달단계와 모아애착 평가를 위해 애쓰신 도내 간호대학 교수님들과 바쁜 병원 일정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대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열정에 감사드린다.

2002년부터 제1회를 시작하여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경상남도간호사회는 경상남도 내 역대 모유수유 수상자와 그 가족, 임신 여성과 가족을 모시고 '제18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사업'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간호사회 중에서 마지막까지 모유수유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동안 건강한 모유수유아 경남대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엄마와 귀여운 아기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성공사례자(엄마와 아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는 완전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으며, 최소 만 2세까지는 다른 음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 통계를 보면 연령별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1주에 26%, 생후 2주에 44.9%, 생후 3주에 45.4%, 생후 4주에 44.4%였으나 생후 3개월은 31.0%, 5개월은 20.1%, 6개월은 4.8%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가슴마사지 서비스 비용지원, 모유수유 방법 교육 및 홍보, 모유수유 시설 확대와 모유수유 물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분만 전후 병원에서부터 모유수유의 장점을 잘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잘 훈련된 모유수유 전문가가 모유수유 관련 정보 및 구체적 수유 기술을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교육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 내 모든 아기 엄마들의 성공적인 모유수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20여 년의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사랑이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하게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였기에 나의 가슴 한켠에 따스함과 뭉클함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2022

# 2022년 본회 주요소식

##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2년 3월 31일(목)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가세하여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환경에서 간호사들은 빈자리까지 채우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간호현장은 아직도 78년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활동에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회 개회식에는 신경림 협회장의 영상 격려사에 이어 강기윤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 이달곤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으며, 강민국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축전을 보내왔다.

올해 총회 기념 수상자는 김해시 박미향 회원과 창원시 최미자 회원이 경상남도지사상을, 함안군 홍은주 회원이 대한간호협회장상을, 남해군 정여진 회원이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대한간호협회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2년 2월 25일(화) 롯데호텔 서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크리스탈볼룸 등 회의실을 분산해 개최하였다. 본회에서는 박형숙 회장을 비롯하여 8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신경림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에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와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의회(ICN) 사무총장의 영상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제20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성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축전을 통해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해 6개항의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1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 개최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1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을 2022년 6월 23일(목) 경상남도간호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주최로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하영미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발표자 및 공동연구자,

교육위원, 임원, 회원 등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회 박형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의료인 감염사태 발생 등으로 간호연구 활동이 부진하여 올해는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학제간 간호연구를 지원하는 간호역량개발사업의 일환인 간호연구지원에서 선정된 4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경남간호 학위논문 자료집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가 간호실무에 적용되어,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당부하였으며, 이어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올해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에서 전문가 활용비로 지원해 주어 경남간호 학위논문 자료집 제작비로 활용하였다.

##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 참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주최로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인 2022년 5월 12일(목)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여하여 간호법 제정 촉구 및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였으며,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도 340명이 참여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 간호정책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간호법이 꼭 제정되길 기원한다. 앞으로 간호사들은 건강증진과 예방, 나아가 글로벌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거리를 행진했다.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결의문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쳤다.

## 간호법 제정 촉구 경남지역 결의대회 개최

경상남도 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30명이 모여 2022년 5월 26일(목) 경상남도 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남정자 제1부회장의 대국민 성명서 낭독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 23일(월)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당사 앞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거라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유포하며 거짓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주영 회원은 성명서

를 통해 단체가 더 이상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되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하며, 340만 경남도민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잘못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 제18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사업 개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간호사회가 공동으로「제18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사업」을 2022년 8월 18일(목) 14:00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5층 가든하우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역대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하는 대회와는 달리 2002년 제1회부터 제17회까지 참가한 수상아들 가족과 경상남도 내 거주자 중 올해 출산하셨거나 임신 중인 어머니와 가족 70여 명이 참석하여 모유수유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체험을 함께 공유하고 힐링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역대 대회 수상아들을 주인공으로 한「모유수유아 성공사례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되었고, 그중 수상자 5명은 자신들의 진솔한 체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 푸짐한 상품이 있는 퀴즈행운상과 아로마테라피, 컬러진단 체험 프로그램, 홍보리플릿과 기념품 증정 등으로 뜻있고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 2022년 초청강연회 개최

경상남도 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0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및 간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이해 증진을 돕기 위하여 2022년 9월 28일(수) 창신대학교 정보관(2호관) 2101호에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를 모시고 '간호다운 간호, 인간다운 돌봄'을 주제로 강연을 마련하여 참석 회원들에게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 간호사가 돌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성 대표는 수십 년간 시민의 편에서 보건의료 운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간호법 제정 찬성과 간병비 관련 문제 해결,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촉구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요양병원 간호부 워크숍 개최

요양병원 간호부 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2022년 9월 28일(수) 창신대학교 정보관(2호관)에서 개최하였다. 경상남도 내 요양병원 간호부에서 총 100명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간호업무 상 요구도가 높은 주제 관련 특강과 사례발표로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며, 이번에는 김외숙 이노솔루션 경남지사장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주제로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추후 실시 프로그램으로 힐링 프로그램 등을 건의하였다.

###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간호대학·병원 간호부)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간호대학·병원 간호부)를 2022년 10월 7일(금)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지하3층 아모르룸에서 간호대학 교수 및 병원 간호부서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개회사(박형숙 회장)에 이어 올해에는 '왜 MZ세대 간호사인가? MZ세대 신규간호사의 성공적인 임상적응을 위한 학교와 병원의 협동전략'을 주제로 병원 간호부 그룹과 간호대학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 및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호사 워크숍 - 임원 및 회원 개최

본회와 분회 임원 및 회원 51명이 참석하여 2022년 10월 14일(금), 창원시간호사회 주관으로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에서 '간호사 워크숍-임원 및 회원'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 분회 지원금 지급과 '어르신 행복잔치' 등 실시 예정 사업에 대한 논의에 이어 람사르문화관 관람, 주남저수지 둘레길 탐방에 이어 커피여행에서 마지막 휴식 후 해산하였다.

주관 분회인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송경희)에서 기념품으로 추억의 진해콩을 선물하였고, 본회에서도 초유단백질을 선물했다.

###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참석

올해도 경남도 내 각 간호대학의 나이팅게일선서식에 참석하여 축하화분과 함께 축사로 선서생들을 격려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기초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병원 등 간호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선서식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념과 가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중 략-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의 역사를 보면, 1893년,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하퍼병원 간호학교 졸업식에서 최초로 나이팅게일 선서를 시작한 이래로 1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호학도들에게는 전통적인 예

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대한간호협회에서 각 간호교육기관의 서약문을 통일하여 지금까지 각 간호대학의 선서식에서 낭독되고 있다.

### 2022 간호정책 선포식 참여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2022년 11월 21일(월) 13:30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총 5만여 명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개 단체들도 함께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천 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식전 행사에 이어 신경림 협회장의 대회사와 내·외빈 인사와 구호 제창, 피켓시위 등을 통하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대국민 결의문 채택에 앞서 퍼포먼스로 신경림 협회장 외 협회 임원들의 단체 삭발식을 단행하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2차 삭발식 거행**

간호법 제정 촉구 제25차 수요집회를 11월 30일 한파경보가 내려진 강추위 속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천여 명(경남 37명 참여)이 집결하였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함께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과 여의도로 이동해 낮12시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속 진행했으며, 수요집회 중에 2차 삭발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지난 5월 17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야당의 제안

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5월 26일, 10월 26일, 11월 23일까지 벌써 세 번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차 삭발식'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담아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장 등 7명 (박형숙 경남회장, 장영숙 전남회장, 안옥희 전북회장, 황지원 부산회장, 신용분 경북회장, 황문숙 제주사무처장, 간호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뜨거운 울음을 삼키면서 한마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결의를 다졌다.

삭발식 이후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침묵 속에 민생법인 간호법 제정 요구를 198일째 외면하고 있다고 하며, 간호사에게 사명감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바꿔야 하고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것처럼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 제정 촉구 부산역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 개최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합동 궐기대회'가 2022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지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5만을 대표해 1만여 명이 집결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1천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그리고 간

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함께 했다.

박형숙 회장이 삭발한 모습으로 연단에 올라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강하게 질타하여 참석한 1만여 명의 영남권 회원들의 환호와 호응을 끌어냈다.

### 제6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참가

제6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가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2022년 11월 1일(화)~3일(목)까지 열렸다. 한·중·일 간호학술대회는 3개국 간호협회가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호학술대회 주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모두에게 간호 접근성 보장(Ensure the Nursing Access to All Citizens for UHC Implementations on Total Healthcare)'이다. 대면(롯데호텔서울) 및 화상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회의로 열렸으며, 3개국 간호사 8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참가한 간호사들은 간호실무·교육·연구분야에서 각국의 최신 간호동향과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도 회원들의 국제적인 간호역량 강화를 위하여 29명의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비를 지원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기빙클럽 후원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2022년 12월 29일(목)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회장 김종길)에 지난해 위기가정 긴급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활동 참여에 이어 올해에도 기빙클럽에 200만 원을 후원하였다.

박형숙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방문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과 우리 간호사들의 정신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더욱 함께하고자 하였다고 하며, 어려운 시기에 긴급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길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 간호역량개발사업 - 간호연구지원

2020년부터 본회 회원들의 연구능력 함양, 다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호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관(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장, 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중 3개 기관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2022년 4월 12일(화)에 공지하여

2022년 6월 10일(금)까지 지원한 팀별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2팀이 선정되었다.
- 연구과제명 : 성인 여성의 성 자기효능감의 요인 구조와 결정 변인에 관한 연구(주관책임연구자: 홍미숙 제일종합병원 팀장)
- 연구과제명 :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영향 요인(주관책임연구자: 임정혜 창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본회 산하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운영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박형숙 운영위원장)에서는 경상남도 내 유휴간호사 발굴, 교육 및 취업까지 지원하여 2022년 예상 목표 수 대비 교육이수자는 110%의 성과를 내었으며, 유휴간호사들의 직장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인력 직무교육이 207% 달성하였고, 긍정적인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교육과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111.5% 달성하였다. 그 외 간호관리자 실무역량강화교육 기본과 상급과정, 실습지도자 양성교육 기본과 강사과정, 예비 간호사 진로교육(온라인), 상시실기교육, EMR교육과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 이수자 및 신규간호사 대상 기본심폐소생술(BLS)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대상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취업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022년 보건의료 관련 유공 표창 수상 현황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 경상남도지사상
-경상남도간호사회 단체 표창 수상(2022.04.07.)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유공자 포장증(은장)
-경상남도간호사회 수상(2022.8.10.)

○2022년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장관상
-이경옥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장 표창 수상
(2022.12.27.)





# 2022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

## 창원시간호사회 | 2008. 06. 24.

### 경남간호사회 연계 "2022년 간호사 워크숍" 개최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송경희)는 2022년 10월 14(금)에 주남저수지 오리야 놀자에서 "2022년 간호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남간호사회 임원·분회 임원 및 회원 사무국 51명이 참석하여 경남간호사회 및 분회 현황을 공유하였고, 체험활동으로 람사르문화관 관람, 주남저수지 둘레길 탐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커피여행에서 회원들 간의 담소를 나누면서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기념품으로 추억의 "진해콩" 과자를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하였다.

## 진주시간호사회 | 2008. 0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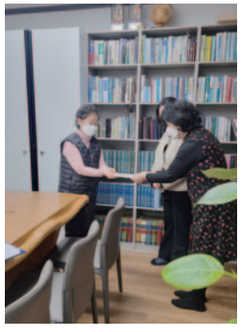
### 간호정책선포식 참석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영미)는 2022년 11월 21일(월)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간호정책선포식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포함하여 143명이 참석하였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3명, 고려병원 8명, 진주노인요양병원 3명, 새진주정신병원 2명, 마취간호사회 1명, 한일병원 5명,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명,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생 94명이 참석하여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하였다. 간호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였다.

###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 참석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영미)는 2022년 12월 2일(금)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4명, 고려병원 9명이 참석하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뜨거운 열기를 모아 지난 2022년 11월 21일(월) 서울에서의 궐기대회에 이어서 부산역에서 개최되었으며 5만 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 이웃돕기 성금 전달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영미)는 경남간호사회에서 시행한 2022년 이웃돕기사업 지원금 대상자 중에서 진주시 거주 중인 최명희(여 68세) 씨가 선정되어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알콜중독 배우자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 틱과 학습장애를 동반한 손주를 부양하는 여성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정하였으며 이웃사랑을 위한 간호사회의 조그만 성의를 전달하였다.

## 거제시간호사회 | 2008. 10. 10.

### 의료봉사활동 실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이정재)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교육 및 기본 간호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2년 10월 6일(목) 요양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과 안나의 집을 방문하였다. 거제시간호사회 회장 인사와 함께 입소자 28명,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생술과 이물에 대한 기도폐쇄 대처에 대한 교육과 혈당측정 및 혈압측정,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용품과 다과를 제공하였다. 입소자에게 기본소생술, 이물에 대한 기도폐쇄 대처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함께 시행함으로 입소자들과 직원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

### 특강 실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이정재)는 2022년 7월 18일(월) 간호사회 회원들을 위한 간호전문직의 비전, 한국 간호역사 및 간호법 제정 특강을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다. 거제시 간호사회 회원 81명이 참석하여 특강을 통해 간호의 역사와 앞으로 간호의 나아가야 할 방향,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상기시킬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간호사의 자긍심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이 되었다.

### 장학금 전달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이정재)는 2022년 11월 24일(목) 떡 바자회 시행 후 수익금으로 2022년 12월 14일(수)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진과 함께 거제대학교에 장학금 전달로 간호학과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정신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통영시간호사회 | 2008. 10. 10.

### 회원역량강화사업(천연화장품 만들기)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통영시 소재 한국동백연구소에서 2022년 5월 19일(목) 2회차로 나누어 통영시간호사회 이사 및 회원 56명이 간호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연화장품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대면 만남을 통해 회원들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초청강연회 실시(스토리텔링도보 프로그램)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2022년 6월 15일(수) 통영시간호사회 이사 및 회원 21명이 참석하여 통영인뉴스 김상현 강사의 안내로 통영시 서피랑길 답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과 역사를 걸으면서 살펴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도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통영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박형숙 경남간호사회 회장도 참석하여 간호법 제정에 대해 안내하였다.

### 불우이웃돕기(장학금 전달)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2022년 12월 29일(목) 통영시간호사회 자체 이웃돕기사업 일환으로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간호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받아 해당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장학금 50만 원을 전달하였다.

## 창녕군간호사회 | 2008. 11. 12.

### 간호역량개발사업 실시

창녕군간호사회(회장 권경순)는 2022년 10월 28일(월) ~ 10월 29일(화) 1박 2일간 산청한방수목원에서 창녕군간호사회 회원 대상 간호역량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권경순 회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부서장 포함 20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진된 간호인력들의 회복과 간호역량개발의 기회를 가졌다. 처음으로 실시한 역량개발사업에 참여 호응도가 높았고 이구동성 추후 정기적인 간호역량개발사업을 실시하기를 희망했다.

### 불우이웃 돕기 성금기탁

창녕군간호사회(회장 권경순)는 2023년 12월 14일 권경순 회장과 하수양 이사가 창녕군청에 30만 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였다.

## 하동군간호사회 | 2008. 11. 12.

### 2022년 하동군간호사회 정기총회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임인숙)는 2022년 4월 29일(금)에 하동군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동군수 윤상기를 비롯하여 하동군 의사회 회장 서정대, 하동군 약사회 회장 김성봉, 치과의사회 회장 이종한, 하동우리들병원 원장, 하동군보건소장, 건강관리과 과장, 보건소 각 계장 등 10분의 내빈과 회원 77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하동군 간호사회

전임 회장(임인숙) 퇴임, 신임 회장 서미옥 보건정책과장 취임, 2021년 운영내용 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보고, 하동군수 윤상기 축사로 간호사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 하동군간호사회 단합대회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서미옥)는 2022년 11월 12일(토)에 회원 35명이 참석하여 하동군 금남면 일대의 대도섬 트래킹 및 남해 유람선 관광을 하였다. 단합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며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 하동군 이웃돕기 사업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서미옥)는 2022년 12월 25일(일) 하동우리들병원 입소자 200명에게 코로나 극복 위문품 수건 200장 제작 전달하였고, 청암면 육남매 가정 난방비(100만 원)를 후원하였다.

## 김해시간호사회 | 2009. 04. 19.

### 정기 대의원총회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2022년 7월 19일(화)에 가야대학교 대강당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외빈으로 홍태용 김해시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홍철, 김정호 도의원, 박형숙 경남간호사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고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160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내용으로 김해시장상(2명), 국회의원상(2명), 김해시간호사회장상(1명)을 시상하였고, 김시영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의 "주파수를 찾아라" 특강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간호사의 활동을 담은 감동적인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의 간절한 염원을 호소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

### 1004데이 문화행사(단체영화관람)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회원복지 차원 행사로 2022년 9월 28일(수)에 단체영화(정직한 후보2)를 관람하였다. 회원 155명이 참여하였으며 권영채 회장의 인사말로 행사를 시작하였고 기념촬영도 하였다. 이번 행사는 급·만성기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하여 회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었으며, 회원의 소속감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

### 임원진 연수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2022년 12월 10일(토) ~ 12월 11일(일)에 전남 신안군 1004섬에서 증경회장단과 유기적 관계 유지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임원진 연수를 개최하였다. 증경회장 3명, 이사 및 회원 17명 등 총 20명이 참석하였으며 간호법 제정 상황 및 향후 행보를 위한 각 지부의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 양산시간호사회 | 2009. 05. 28.

### 2022년 양산시간호사회 총회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2022년 4월 28일(목)에 회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양산시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간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 간호대학생 장학금 지급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2022년도 양산시 간호사회 간호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대상자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생 2명, 영산대학교 간호대학생 2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생 2명으로 후배 양성에 기여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거창군간호사회 | 2010. 06. 18.

### 장학금 지원사업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최일희)는 2022년 6월 13일(월) 회장 및 임원들이 경남도립거창대학을 방문하여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거창군간호사회의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관내 중학교에 매년 시행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지역의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거창간호대학에 기탁해오고 있다.

거창군간호사회는 2010년 창립되어 회원들의 권익옹호(간호법 제정 등)와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언제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전문직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 간호법 제정 주민홍보 줍깅 캠페인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최일희)는 2022년 6월 20일(월) ~ 7월 11일까지 월요일마다 4회에 걸쳐 회원과 회원 가족이 참여하여 거창 시내 강변로 주변 환경정화활동으로 줍깅(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거창군간호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간호사의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강변 주변의 수풀 사이에 있던 오래된 쓰레기와 바위 사이에 낀 쓰레기를 줍는 등 소중하고 깨끗한 거창 만들기에 앞장섰다.

### 간호역량개발사업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최일희)는 2022년 간호역량개발사업으로 "도자기 체험"을 2022년 7월 19일(화) ~ 7월 21일(목) 실시했다. 5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 체험은 일상에 지친 간호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내가 만든 접시나 컵을 사용함으로써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시간을 가졌다.

## 남해군간호사회 | 2013. 12. 20.

### 명절 이웃돕기 사업 및 홍보사업

남해군간호사회(회장 류진희)는 2022년 1월 26일(수), 2022년 9월 7일(수),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남해군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해 주었다. 부군수 노혜영과 회장 류진희 외 3명이 동참하였다. 위 사실을 지역신문에 홍보하여 남해군간호사회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간호역량개발사업

남해군간호사회(회장 류진희)는 2022년 8월 30일(화) 회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제공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회원들에게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나만의 지갑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참석자: 노혜영, 정현주, 류진희, 강영화, 윤혜심, 김지회, 김진선, 강숙녀, 장미경, 이윤정, 곽선경, 안수진, 정유정, 김보라, 김현도, 이지용, 박찬미

### 대지역 사회사업

남해군간호사회(회장 류진희)는 남해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서 총 5회에 걸친 회의 참석 및 남해문화재 야행 퍼레이드 참가 등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강영화 전 회장은 남해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앞으로도 남해군간호사회는 간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예정이다.

## 합천군간호사회 | 2015. 05. 26.

### 합천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및 경품 전달

합천군간호사회(회장 이미경)는 2022년 10월 7일(금) 2022년 제17회 합천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 임산부의 날 기념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경품 협찬(합천 황토한우 2세트)을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제한적인 행사로 인한 임산부 가정의 스트레스 해소에 합천군간호사회가 앞장서서 임산부 배려 및 출산 장려 인식개선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고취 및 출산장려문화에 앞장섰다.

## 밀양시간호사회 | 2016. 03. 19.

### 밀양시간호사회 7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이명순)는 5월 14일(토) 삼문동 소재 밀양아리나 호텔 3층 남천홀에서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병원, 보건소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밀양시간호사회는 지난 2016년 창립 후 구성원 간 친목도모,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간호사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총회에서는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2021년도 사업시행결과 보고 및 2021년도 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안) 심의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기타 토의가 이어졌다.

이어 밀양시간호사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4년간 회장직을 임해 온 이명순 회장을 이어 김정화 제1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정화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3년차가 된 시점까지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희생과 헌신을 다해 온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전국 간호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웃돕기 성금 전달

밀양시간호사회(회장 김정화)는 2022년 5월 28일(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밀양시간호사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성금을 전달하였다. 밀양시간호사회는 지난 2016년 창립 후 구성원 간 친목도모,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간호사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2022년 이웃돕기 성금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지원사업으로, 밀양시간호사회를 통해 관내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 전달이 이루어졌다. 밀양시간호사회 회장 김정화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금을 전달 받은 이웃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도 취약계층을 위해 따스한 정성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 받은 성금은 가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초청강연회 개최

밀양시간호사회(회장 김정화)는 2022년 9월 3일(토) 밀양문화원에서 초청강연을 개최하였다. 회원과 시민 180여분을 모시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친절한 염블리의 비밀투자노트 - 돈, 주식투자 그리고 부자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해마다 열리는 밀양시간호사회 초청 강연은 지역사회에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강연으로 준비되어 왔었다. 이번 강연을 통해 간호전문직의 근무 환경과 일상을 벗어나 경제의 흐름과 트랜드를 알아보며 의사소통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청 강연의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강연에는 우리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밀양시간호사회 회장 김정화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간호사 회원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익하고, 뜻깊은 강연을 준비하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우리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함안군간호사회 | 2017. 03. 27.

### 이웃돕기 활동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2년 2월 4일(금) 경남간호사회에서 2021년 이웃돕기 사업예산으로 내려온 90만원을 함안군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 의뢰 받은 가정에 각각 30만 원씩 전달하였다.

### 홍은주 전 함안군간호사회 회장 대한간호협회장상 수상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2년 3월 31일(목) 2022년 제78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서 홍은주 전 함안군간호사회 회장이 대한간호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그동안 함안군간호사회의 회장으로써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으로써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신 홍은주 전 함안군간호사회 회장에게 감사를 전하는 장이었다.

###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 가입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2년 4월 14일(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함안군여성 봉사단체인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는 함안군간호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봉사와 사랑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 회원마을지킴이 사업 발대식 참여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2년 6월 14일(화) 함안군 아동·여성 안진지역 연대에서 주관하는 아동·여성안전 마을지킴이단 발대식에 참여하였고 이후 각종 캠페인 참여, 5명의 간호사회 회원이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매달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피는 등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 함안군간호사회 회원역량개발사업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2년 8월 26일(금), 8월 27(토)일 양일간 간호사 역량개발사업(목공체험)의 일환으로 나무공예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 2022년 어르신행복잔치 개최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2년 11월 26일(토) "2022년 노년기 여성의 어르신 행복잔치" 를진행하였다. 70세 이상 여성 노년기 어르신 200여 분이 참여하여 노년기 여성 우울증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후 난타 공연 노래 한마당을 관람하고 도시락, 음료 등을 제공하였다.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섬겨주셨던 함안군간호사회 회원님들이 함께 신명나게 즐겼던 행사였다.

### 취약계층 김장하기 봉사활동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2년 12월 5일(월)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하기 자원봉사활동에 회원들이 참여하여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나누었다.

## 2023년 경상남도 간호대학 현황

| 번호 | 학교명 | 간호교육 인증평가 연도 | 학과장 (학장 및 학부장) | 정원 (정원외) | 주 소 (우편번호) | 운영과정 (대학원, 전공심화, 전문간호사 외) | 총 학생 수 | |
|---|---|---|---|---|---|---|---|---|
| | | | | | | | 남 | 여 |
| 1 | 가 야 대 학 교 | 2020 | 최현주 | 165 (22) | 김해시 삼계로 208 (50830) | 보건대학원, 의료인 편입 | 682 | |
| | | | | | | | 166 | 516 |
| 2 | 거 제 대 학 교 | 2020 | 박순아 | 418 (38) | 거제시 마전1길 91 (53325) | | 456 | |
| | | | | | | | 109 | 347 |
| 3 | 경 남 대 학 교 | 2019 | 마예원 | 125 (10) |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51767) | 대학원 | 471 | |
| | | | | | | | 95 | 376 |
| 4 | 경남도립거창대학 | 2020 | 황진희 | 75 (2) |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50147) | | 264 | |
| | | | | | | | 65 | 199 |
| 5 | 경상국립대학교 | 2020 | 최소영 (학장) | 110 (3) | 진주시 진주대로 501 (52828) |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 94 | |
| | | | | | | | 7 | 87 |
| |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2020 | 박정혜 | | 진주시 동진로 33 (52725) | | 86 | |
| | | | | | | | 31 | 55 |
| 6 | 김 해 대 학 교 | 2020 | 박홍주 (학부장) | 145 (52) | 김해시 삼안로112번길 198 (50811) | | 778 | |
| | | | | | | | 167 | 611 |
| 7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2019 | 김희진 | 187 (54) | 양산시 명곡로 321 (50578) | | 654 | |
| | | | | | | | 146 | 508 |
| 8 | 마 산 대 학 교 | 2021 | 박지은 (학부장) | 220 (120)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51217) | 전공심화과정 | 1,252 | |
| | | | | | | | 216 | 1,036 |
| 9 | 부 산 대 학 교 | 2020 | 이해정 (학장) | 367 (50) |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50612) |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감염, 중환자, 정신, 노인) | 154 | |
| | | | | | | | 9 | 145 |
| 10 | 영 산 대 학 교 | 2019 | 이민주 | 95 (20) | 양산시 주남로 288 (50510) | 일반대학원 | 463 | |
| | | | | | | | 81 | 382 |
| 11 | 진주보건대학교 | 2020 | 박명남 (학부장) | 254 (114) | 진주시 의병로 51 (52655) | 학사교육과정 학점은행제 | 1,012 | |
| | | | | | | | 205 | 807 |
| 12 | 창 신 대 학 교 | 2020 | 제남주 (학장) | 100 (15)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51352) | 일반대학원(석사,박사), 학점은행제, 전문간호사과정(호스피스) | 458 | |
| 13 | 창 원 대 학 교 | 2019 | 전미경 | 36 (1) |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51140) |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간호학과(석사,박사), 보건학전공(야간) | 145 | |
| | | | | | | | 38 | 107 |
| 14 | 창원문성대학교 | 2021 | 전윤화 | 124 (24) |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 (51410) | | 442 | |
| | | | | | | | 102 | 340 |
| 15 | 한국국제대학교 | 2021 | 오수미 | 11 |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 (52833) | | 168 | |
| | | | | | | | 45 | 123 |

(2023년 3월 기준)





## 2022년 경남간호사회 임원

| 직 위 | 성 명 | 근무처 및 직책 |
|---|---|---|
| 회 장 | 박 형 숙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제1부회장 | 남 정 자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제2부회장 | 성 명 숙 |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
| 이 사 | 권 영 채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김 미 희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
| | 김 희 자 | 전) 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
| | 박 신 숙 | 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
| | 박 옥 명 | 전)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
| | 박 옥 엽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
| | 신 미 란 |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
| | 이 옥 경 |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
| | 전 진 선 | 전)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
| | 조 상 희 | 진주고려병원 보건관리자 |
| | 조 수 정 | 거제맑은샘병원 간호본부장 |
| | 하 영 미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 감 사 | 손 계 순 | 전)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주사 |
| | 이 종 임 | 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
| 사무처장 | 양 은 주 |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국 |

## 2022년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 회장

| 단체명 | 성 명 | 근무처 |
|---|---|---|
| 창원시간호사회 | 송경희 | 전) 창원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
| 진주시간호사회 | 김영미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과장 |
| 거제시간호사회 | 이정재 | 거제 대우병원 간호부장 |
| 통영시간호사회 | 성명숙 |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
| 창녕군간호사회 | 권경순 | 국립부곡병원 간호과장 |
| 하동군간호사회 | 서미옥 | 하동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
| 고성군간호사회 | 이을희 | 고성군보건소 의약담당 |
| 김해시간호사회 | 권영채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양산시간호사회 | 김미희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
| 사천시간호사회 | 최정숙 | 삼천포제일병원 간호본부장 |
| 거창군간호사회 | 최일희 | 임불보건진료소 진료소장 |
| 남해군간호사회 | 류진희 | 남해군보건소 치매예방팀장 |
| 합천군간호사회 | 이미경 | 합천군보건소 소장 |
| 밀양시간호사회 | 김정화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
| 함안군간호사회 | 옥행자 |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

(창립순)

## 2022년도 상임위원

| 구분 | 직책 | 성 명 | 근무처 |
|---|---|---|---|
| 기획위원 | 위원장 | 남정자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위 원 | 공명숙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호부장 |
| | | 김 희 | 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
| | | 김정미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 박신숙 | 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
| | | 송경희 | 전) 창원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
| | | 최정숙 | 삼성창원병원 플로우매니저 |
| 법제위원 | 위원장 | 성명숙 |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
| | 위 원 | 김영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 | | 윤연옥 |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원장 |
| | | 이명순 | 전) 차월보건진료소 진료소장 |
| | | 이옥경 |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
| | | 전진선 | 전)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
| 교육위원 | 위원장 | 하영미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 | 위 원 | 김미희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
| | | 김성진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 김은희 | EH여성헬스케어 연구소장 |
| | | 박옥엽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
| | | 하주영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학과장 |
| 재무위원 | 위원장 | 권영채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위 원 | 김현정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고객지원팀장 |
| | | 김희자 | 전) 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
| | | 박옥명 | 전)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
| | | 조영란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 조정의 | 거붕백병원 병원이사 |
| | | 홍은주 |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
| 홍보위원 | 위원장 | 신미란 |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
| | 위 원 | 김영란 | 전) 장유엠아이병원 기획조정실장 |
| | | 심봉희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
| | | 이숙희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 조상희 | 진주고려병원 보건관리자 |
| | | 하재현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 | | 황진희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학과장 |

# 편집자 레터

어느새 하얀 매화 꽃망울이 터지고 몽글몽글 산수유꽃이 피어나는 봄이 되어서야『경남간호』편집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많은 홍보위원분들의 도움으로 또 한고비를 넘어갑니다.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해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저렇게 구도도 맞추어 보고 가장 아름다운 내용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행복하세요.〈신미란 위원장〉

그리 짧지 않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홍보위원으로서 그냥 그대로 순응하며 자리를 채워가지 않으려, 한 지면이라도 우리 회원들의 공간으로 메워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8호 역시 아쉬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묻어있기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부디 다음 해부터는 주인된 회원들의 공간으로 지면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김영란 위원〉

이상 기온 탓에 봄이 일찍 온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온통 코로나 팬데믹과 간호법 제정 관련하여 이리저리 바쁜 한 해였습니다. 2023년은 좀 더 다양하고 활기찬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래봅니다.〈심봉희 위원〉

2022년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는 간호법이 완성되는 해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이숙희 위원〉

그동안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탓에 일상의 회복과 함께 시작된 2023년 봄은 여느 봄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새로운 봄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하재현 위원〉

작가들이 원고를 탈고한 후 한동안 아쉬움과 설렘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경남간호』를 발간하기 전, 몇 번의 교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간호사들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내려 애썼고, 발간된 후에는 설렘으로 회지의 첫페이지를 열어보곤 했습니다. 그동안『경남간호』를 공감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조상희 위원〉

한겨울 추위에 얼어붙었던 들녘에도 새싹이 돋고 꽃망울이 맺히고 조만간 초록이 무성해지겠지요. 우리가 지펴놓은 간절한 열망의 불씨도 뜨겁게 활활 타올라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이번 28호『경남간호』에 담아 내어놓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황진희 위원〉

1923 2023

대 한 간 호 협 회 창 립 1 0 0 주 년

Korean Nurses Association